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1930년대 중반  
소련 강제노동수용소의 변화

백해-발트해 산업단지의 수용소 신문에 드러난  
수감자관(觀)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사학과  
홍지수

1930년대 중반  
소련 강제노동수용소의 변화

백해-발트해 산업단지의 수용소 신문에 드러난  
수감자관(觀)의 변화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한 정 속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사학과

홍지수

홍지수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1월

위원장 배영수 (인)

부위원장 한정속 (인)

위원 주경철 (인)

## 국문초록

본고는 1930년대 중반 소련의 강제노동수용소가 겪은 변화에 주목하고 그 변화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소련의 강제노동수용소는 1930년에 출범한 “굴라그(Гулаг)” 산하의 구금기구로, 1930년대를 지나며 급격히 성장했다. 기존의 연구들은 스탈린 시대에 벌어진 대규모 정치적·사회적 탄압의 맥락 속에서 강제노동수용소를 조명하며, 수용소가 무엇보다도 억압기구 혹은 형벌기구의 기능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소련의 산업화가 심화되던 1930년대 중반 강제노동수용소가 경험한 중요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한계를 갖는다. 경제적 생산에 요구가 전사회적으로 증대하면서 수용소 또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규모의 생산 활동을 수행해야 했다는 것이 그 변화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그간의 연구가 주목하지 않았던 수용소의 ‘내부’에서 두드러졌다.

이에 본고는 소련의 대표적인 강제노동수용소인 백해-발트해 산업단지에서 발간된 내부 신문들을 검토하며 1935-36년 수용소의 일상이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재편된 과정을 살핀다. 특히 수용소 신문이 수감자들을 생산성 증진에 매진하는 노동자로 그렸으며 이들의 수감생활을 일종의 공장생활로 묘사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는 당대의 수용소가 경제적 생산기구로 변모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1935년도에 발간된 수용소 신문은 수감자들에 대한 ‘재교육’을 도모한다는 이전 시기의 기조와 거리를 두며 수감자들의 생산 활동과 그들이 달성한 ‘생산성’을 핵심적인 주제로 다뤘다. 1935년 말에 시작된 스타하노프운동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했다. 백해-발트해 산업단지는 스타하노프운동에 특화된 신문을 별도로 발간하며 수감자들의 생산성이 수용소의 경제적 역할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음을 강조했던 것이다.

수용소의 실상을 반영하는 대부분의 사료들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수용소 신문에 드러난 수용소 당국의 수감자관(觀)은 이전까지 간과되었던 1930년대 중엽 수용소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

공한다. 강제노동수용소는 억압기구와 형벌기구, 그리고 생산기구의 영역을 오가며 당대 소련 사회 전반의 변화에 발맞추어 독특한 입지를 구축했던 것이다. 특히 소련 경제의 변영기라고도 불렸던 1930년대 중반, 수감자들을 노동자로 바라보았던 수용소 내부의 담론은 소련 경제와 수용소가 맺고 있던 관계를 새로이 조명할 만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주요어:** 굴라그, 강제노동수용소, 수용소 신문, 백해-발트해 산업단지, 수감자, 굴라그의 생산성, 스타하노프운동, 인간개조

**학 번:** 2013-22778

# 목 차

국문초록 .....	i
서론 .....	1
I . 백해운하의 건설과 인간개조론, 1931-33년 .....	8
II . 인간개조론의 퇴조와 생산성론의 대두, 1935년 .....	13
1. BBK의 설립과 수용소 신문의 변화 .....	13
2. 피교육자에서 노동자로 .....	17
3. 수감자들의 교육자에서 당국의 노동자로 .....	20
4. ‘재교육’에서 ‘생산성’으로 .....	22
III . 스타하노프운동과 생산성론의 강화, 1936년 .....	26
1. BBK의 스타하노프운동과 수용소 신문의 변화 .....	26
2. ‘수감자-스타하노프노동자’의 역할 .....	29
3. ‘수감자-스타하노프노동자’의 지위 .....	32
결론 .....	36
참고문헌 .....	40
Abstract .....	50

## 서론

1932년 말, 마리아 트랍키나(Мария Травкина)는 소련의 서북쪽 변경, 카렐리아(Карелия) 지역의 켐(Кемь)에 도착했다. 그녀는 곧 시베이프롬(Швейпром)이라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당시 그녀는 미숙련 노동자였다. 그러나 트랍키나는 열심히 노동하고 기술을 연마한 끝에 미싱 재봉공이 되었고, 마침내 1935년 1월에는 작업장의 책임자로 발탁되었다. “그녀는 노동자들 및 기술부원들 사이에서 권위를 가졌고, 시베이프롬에서 가장 뛰어나게 작업장을 관리했다. 그녀의 작업장은 생산 기준량을 176-208 퍼센트로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했다.”<sup>1)</sup>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노동을 습득하고 경력을 쌓았던 곳이 스탈린시대의 강제노동 수용소 중 하나인 백해-발트해 산업단지(Беломорско-Балтийский Комбинат: ББК)였다는 사실이다. 트랍키나는 죄수였던 것이다.

그녀의 사례는 소련의 강제노동수용소, “굴라그(ГУЛАГ)”<sup>2)</sup>의 수감자들에

- 
- 1) “Мария Травкина прибыла в лагерь неграмотной, теперь она—лучший начальник цеха,” *Перековка*, 1936.1.4. 본고가 인용하는 수용소 신문 *Перековка*, *Юный строитель*, *Заполярная перековка*, *Стахановец Сегежстроя*는 굴라그 내에서 발간된 신문들을 수합한 마이크로피시 자료 *The Gulag Press, 1920-1937* (Leiden: IDC Publishers, 2000)에 수록되어 있다.
  - 2) “교정노동수용소 및 집단거주지 본부(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исправительно-трудовых лагерей и колоний)”의 첫 글자를 딴 굴라그(ГУЛАГ)는 1930-31년 통합국가정치보안부(Объединен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полит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ОГПУ) 산하에 설립된 관료기구의 명칭이다. 굴라그는 교정노동수용소와 집단거주지, 교도소 및 특별정착촌 등을 관리하며 이들 간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조직, 운영했다. 이러한 굴라그 내의 다양한 구금기구들은 상이한 목적과 기능을 가졌다. 굴라그 산하 구금기구들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는 Steven A. Barnes, *Death and Redemption: The Gulag and the Shaping of Soviet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16-27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굴라그는 수용소 자체를 지칭하거나 소련의 강압적인 형벌 정책을 일컫는 일반 명사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다. 굴라그의 본래 의미를 삭제하고 이를 소련의 억압적 형벌정책 자체를 대변하는 용어로 사용한 경우는 Anne Applebaum, *Gulag: A History* (New York: Doubleday, 2003); Галина М. Иванова, *История ГУЛАГа 1918-1958: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й и политико-правовой аспекты* (Москва: Наука, 2006) 참고. 소련의 맥락을 넘어 강압적 형벌정책 일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 대표적인 사례는 Ruth Wilson Gilmore, *Golden Gulag: Prisons, Surplus, Crisis, and Opposition in Globalizing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2007) 참고.

관한 일반적인 묘사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많은 문학작품과 학문적 연구들은 굴라그 수감자들을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그려왔던 것이다. 굴라그의 실상을 드러내는 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희생자들의 이야기는 굴라그와 그 수감자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기초적인 전거가 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이다.<sup>3)</sup> 그에 따르면 수용소는 철조망과 감시탑으로 둘러싸인 고립된 “군도(archipelago)”였고, 수감자들은 그 어떤 희망도 없이 노예노동을 수행하며 체제의 인신적, 정신적 억압에 시달렸다. 1970년대 이후 서방세계에서부터 시작해 소련 붕괴 이후 본격적으로 출판되었던 굴라그 생존자들의 자서전은 이런 시각을 뒷받침해왔다.<sup>4)</sup>

그러나 수많은 자서전이 증언하듯 굴라그가 참혹하기만 했다면, 트랍키나는 어떻게 숙련공이 되고 더 나아가 “진급자(выдвиженец)”<sup>5)</sup>가 될 수 있었을까? 그녀와 같은 수감자들의 존재는 굴라그가 어떠한 기관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물론 굴라그는 수많은 범죄자와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억압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억압만이 굴라그의 유일한 기능은 아니었다. 굴라그는 1930년 하나의 관료기구로 출범한 이래,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변화했던 것이다. 수감자들의 지위 또한

3) Aleksandr I. Solzhenitsyn, *The Gulag Archipelago, 1918-1956: An Experiment in Literary Investigation*, trans. Thomas P. Whitney and Harry Willets, 3 vols. (New York: Harper Perennial, 2007). 솔제니친은 굴라그에 대한 “문학적 탐구”를 넘어 지하출판물 및 구술사 자료 등을 취합하여 수용소 내의 일상과 관련된 폭넓은 정보를 제공했다. 이 저작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비판은 Gabor Thomas Rittersporn, *Stalinist Simplifications and Soviet Complications: Social Tensions and Political Conflicts in the USSR* (Chur: Harwood Academic Publishers, 1991), 16 참고.

4) 대표적인 굴라그 생존자의 자서전은 다음과 같다. Evgeniia Ginzburg, *Journey into the Whirlwind* (New York: Brace and World, 1967); idem, *Within the Whirlwind* (New York: Brace and World, 1981); Varlam Shalamov, *Kolyma Tales*, trans. John Glad (New York: W. W. Norton, 1980). 수용소 관리자의 입장에서 쓰인 자서전은 Fyodor Vasilevich Mochulsky, *Gulag Boss: A Soviet Memoir*, trans. Deborah Kapl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참고. 희생자 문학과 구술사 자료 등 굴라그 생존자들의 경험을 통해 수용소의 모습을 이해하려했던 대표적인 시도는 다음을 볼 것. Leona Toker, *Return from the Archipelago: Narratives of Gulag Survivor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0); 올랜도 파이저스, 김남섭 역, 『속삭이는 사회: 스탈린 시대 보통 사람들의 삶, 내면, 기억』 (서울: 교양인, 2013).

5) “Мария Травкина прибыла в лагерь неграмотной, теперь она—лучший начальник цеха,” *Перековка*, 1936.1.4.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때때로 척결되어야 하는 ‘인민의 적’이기도,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 ‘개조의 대상’이기도 했으며 소련의 경제 건설에 참여하는 ‘노동자’이기도 했다.

트랍키나가 작업장의 책임자로 임명된 1935년은 굴라그가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던 시기 중 하나였다. 일부 수감자들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시기”라고 회상하기도 했던 1930년대 중반, 굴라그는 급격하게 몸집을 늘리며 수많은 경제적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했다.<sup>6)</sup> 이러한 면모는 1930년대 초반 죄수의 개조를 외치던 굴라그와도, 1930년대 후반 대숙청(1937-38)의 전위가 되었던 굴라그와도 다른 것이었다. 이제 굴라그는 당면한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수감자들의 노동 생산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1935년 후반, 당대의 주요 경제정책이었던 스타하노프운동이 굴라그에서도 시작되면서 변화는 더욱 명확해졌다. 트랍키나와 같은 ‘경력’을 가진 수많은 ‘스타하노프노동자(Стахановец)’들이 수용소 내에 대거 등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서전과 회고록 등 소위 희생자 문학은 1930년대 중반 굴라그가 겪은 변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의 자서전 저자들이 아들러(Nanci Adler)가 “첫 번째 귀환(the first return)”이라 명명했던 1947-53년, 혹은 그 이후에 출소한 수감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출소시기로 미루어보았을 때 그들의 경험은 주로 스탈린의 대숙청 시기나 그 이후에 국한되어 있었다.<sup>7)</sup> 즉, 대부분의 희생자 문학들은 굴라그가 하나의 관료기구로 출범해 본격적으로 성장했던 1930-36년의 변화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채 대숙청 이후의 상황을 전형적인 굴라그의 모습으로 상정했던 것이다.

굴라그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들 또한 시기에 따른 굴라그의 변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변화보다는 당대 소련 국가에서 굴라그가 담당하고 있던 특정 기능에 주목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굴

---

6) Oleg Khlevniuk, *The History of the Gulag: From Collectivization to the Great Terror*, trans. Vadim A. Staklo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4), 105.

7) Nanci Adler, *The Gulag Survivor: Beyond the Soviet System*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2004), 51-74.

라그의 핵심 역할을 정치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콘퀘스트(Robert Conquest)에 따르면 굴라그는 스탈린의 정치적 압제기구로 “잠재적인 분란의 소지자”들과 체제의 적들을 효율적으로 격리 및 처벌하는 임무를 수행했다.<sup>8)</sup> 한편 다른 연구자들은 굴라그의 경제적인 기능에 방점을 찍었다. 달린(Alexander Dallin)과 니콜라예프스키(Boris Nicolaevsky)는 당국이 급격한 공업화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굴라그의 강제노동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sup>9)</sup> 이러한 해석은 소련 붕괴 이후의 연구에도 상당한 영향을 남겼다. 일례로 이바노바(Galina Ivanova)는 굴라그가 출범하기 이전인 1920년대부터 강제수용소들의 주목적은 노예 노동을 동원한 경제적 생산이었다고 보았다.<sup>10)</sup>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열람할 수 있는 자료의 폭이 증가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은 굴라그의 발전 과정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들에 따르면 굴라그는 하나의 관료기구로서 스탈린 시대의 주요 정책들과 맞물려 변화했다.<sup>11)</sup> 흐레브뉴크(Oleg Khlevniuk)의 연구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는 1930년대 굴라그가 중앙의 정책에 따라 시기별로 서로 다른 정치적, 경제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sup>12)</sup> 한편 일부 학자들은 중앙 당국과의 관계를 넘어 지역별로 다양한 발전 양상을 보였던 개별 수용소들에 주목했다. 예를 들어 카렐리아 지역을 연구한 배런(Nick Baron)은 굴라그의 발전을 해당 지역 전체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와 연결시켰다.<sup>13)</sup> 하지만 이러

8) Robert Conquest, *The Great Terror: A Reassess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333-339.

9) Alexander Dallin and Boris Nicholaevsky, *Forced Labour in Soviet Rus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7). 굴라그를 경제적 착취기구로 바라보는 시각은 희생자 문학에서도 잘 드러난다. 대표적인 사례는 1939-42년 수감생활을 했던 굴라그 생존자가 저술한 Stanislaw Swianiewicz, *Forced Labour and Economic Developm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18-19 참고.

10) Galina Mikhailovna Ivanova, *Labor Camp Socialism: The Gulag in the Soviet Totalitarian System*, trans. Carol Flath (Armonk: M. E. Sharpe, 2000), 69-70.

11) 굴라그의 관료기구적 속성을 강조한 연구는 Michael Jakobson, *Origins of the GULAG: The Soviet Prison-Camp System, 1917-1934* (Lexington: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3) 참고. 국내 연구로는 다음을 볼 것. 김남섭, 「스탈린 테러와 소련의 강제수용소: 굴라그와 강제 노동의 경제학」, 『제노사이드 연구』, 제3호 (2008): 67-99.

12) Khlevniuk, *The History of the Gulag*, 333-334.

13) BBK를 포함한 카렐리아 지역의 굴라그는 경제 계획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주요 산업

한 연구들은 관련 기관들 간의 서신이나 중앙 당국의 공문에 주로 의존함으로써 굴라그의 외형적 기능 변화만을 밝히려 했다는 한계를 갖는다.<sup>14)</sup>

최근의 연구들은 그동안 간과되어온 굴라그의 내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sup>15)</sup> 이러한 연구를 촉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개별 수용소에서 발행되었던 신문들이다. 굴라그의 일상을 드러내는 자료가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도 수용소의 신문들은 역사적 사료로서 저평가되어왔다.<sup>16)</sup> 하지만 이 신문들은 당국 간의 문서나 개별 자서전들이 반영하지 못하는 수용소의 일상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수용소 신문들이 수감자들의 손으로 발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신문들은 당국의 정책을 선전했을 뿐만 아니라 수감자들의 말과 글을 통해 해당 정책이 실현되었던 양상을 기록했다. 즉, 수용소 발간 신문들은 기존의 연구들이 규명하고자 했던 굴라그의 외형적 변화가 수용소의 내부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제한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사료인 것이

---

및 인력에 대한 관찰권을 둘러싸고 지역 당국과 독특한 관계를 형성했다. Nick Baron, *Soviet Karelia: Politics, Planning and Terror in Stalin's Russia, 1920-1939* (London: Routledge, 2007). 이 외에 개별 수용소의 발전 과정을 추적한 연구들은 David J. Nordlander, "Capital of the Gulag: Magadan in the Early Stalin Era, 1929-1941" (PhD diss.,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1997); James R. Harris, *The Great Urals: Regionalism and the Evolution of the Soviet Syste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105-123; Peter Gregory and Valery Lazarev, eds., *The Economics of Forced Labour: the Soviet Gulag*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2003); Simon Ertz, *Zwangsarbeit im stalinistischen Lagersystem: Eine Untersuchung der Methoden, Strategien und Ziele ihrer Ausnutzung am Beispiel Norilsk, 1935-1953* (Berlin: Duncker & Humboldt, 2006) 참고.

14) Lynne Viola, *The Unknown Gula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188; Wilson Bell, "The Gulag and Soviet Society in Western Siberia, 1929-1953" (PhD diss., University of Toronto, 2011), ii.

15) 문학적 묘사나 수용소의 외적 기능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굴라그의 내부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최근의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것. 김남섭, 「스탈린 시대의 소련 강제수용소 연구: 수감자들을 둘러싼 수용소 내의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제202호 (2009): 295-331.

16) 여러 문서고에 분산되어 있던 수용소 내 신문 및 잡지 100여 종을 수합해 마이크로피 시로 엮은 *The GULAG Press, 1920-1937*은 이전까지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신문 자료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었다. 본고는 이 사료집에 수록된 신문들을 검토했다. 신문과 같은 굴라그 내부 발간 문헌들을 저평가해온 연구 풍토에 대한 지적은 Andrea Gullotta, "A New Perspective for Gulag Literature Studies: the Gulag Press," *Studi Slavistici* 8, no. 1 (2011): 95-111, 특히 96 참고.

다.<sup>17)</sup>

반즈(Steven A. Barnes)와 벨(Wilson T. Bell)은 수용소 신문을 활용해 개별 수용소의 변화를 검토한 대표적인 연구자들이다. 이들에 따르면 굴라그는 무엇보다도 수감자들을 ‘새로운 소비에트형 인간’으로 개조하는 근대적 훈육기구였다.<sup>18)</sup> 1930년대에 활발히 발간되었던 수용소 신문은 이러한 굴라그의 역할을 반영했다. 특히 바이칼-아무르 수용소(БАМлаг)에서 발간된 신문을 연구한 벨에 따르면 굴라그는 수감자들에게 불세비키적 가치를 학습시켜 그들을 규율 잡힌 시민으로 개조하는 공간으로, 스탈린주의적 근대성을 표방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수용소 신문의 핵심 목표가 수감자에 대한 재교육(перевоспитание)이었다고 보았다.<sup>19)</sup> 즉, 반즈와 벨은 굴라그의 역사를 소련 형벌 이데올로기, 더 넓게는 소비에트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던 이데올로기 전체의 반영이자 변주의 과정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수용소 신문들에 실린 여러 내용 중 근대적 훈육과 재교육을 강조하는 기사에만 집중한 나머지, 1930년대 중반 굴라그의 내부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간과했다.<sup>20)</sup> 그 변화는 당대의 수용소 신문들이 소비에트적 근대성의 또 다른 축을 이루는 경제적 합리성, 즉 생산성을 새로이 강조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제2차 5개년 계획(1933-37)의 시행과 함께 굴라그는 무엇보다도 소련 변방의 경제적 기지로 주목받고 있었다. 주어진 경제적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굴라그 당국은 생산성 증진에 전력을 기울였고, 이와 함께 굴라그 수감자들의 일상은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죄수 노동력 이외의 생산요소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못했던 당대 굴라그에서 생산성의 향상은 곧 수감자들의 노동 생산성 제고를 의미했던 것이다. 이제 수감자들은 새로운 소비에트형 인간에 합당한 규율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가 되어 생산성 증진에

---

17) Thomas Alun, “On Guard at BAMlag: Representations of Guards in the 1930s Gulag Press,” *The Soviet and Post-Soviet Review* 41, no. 1 (2014): 5.

18) Barnes, *Death and Redemption*, 10-16, 특히 10, 13 참고; Wilson T. Bell, “One Day in the Life of Educator Khrushchev: Labour and Kul’turnost’ in the Gulag Newspapers,” *Canadian Slavonic Papers* 46, no. 3-4 (2004): 289-313.

19) Bell, “One Day in the Life of Educator Khrushchev,” 289.

20) Barnes, *Death and Redemption*, 57-68; Bell, “One Day in the Life of Educator Khrushchev,” 291-293.

앞장서야만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높은 생산성을 갖췄던 트랍키나는 일개의 죄수에서 작업장의 책임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리고 1930년대 중반 굴라그에서 발간된 신문들은 이러한 변화를 기록한 보고였다.

그리하여 본고는 1935-36년, 소련의 대표적인 수용소 중 하나였던 ББК의 신문들을 중심으로 수감자들의 핵심 역할이 생산성 증진으로 변화했던 과정을 추적한다. 이는 당대의 굴라그가 경제적 기구로 변모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2장에서는 ББК의 설립 이전 백해-발트해 수용소(БелБалтЛяг)의 탄생과 그것이 표방했던 ‘인간개조(перековка)’의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이 수용소는 수감자를 무엇보다도 재교육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1933년 이후 굴라그의 경제적 역할이 강화되면서 수용소는 ‘산업단지’로 재탄생했다. 이어지는 두 장에서는 1935-36년에 발간된 수용소 신문들을 통해 굴라그의 변화가 수감자들을 바라보는 당국의 시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논할 것이다. 3장은 1935년 전반기, 피교육자로서의 수감자와 노동자로서의 수감자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며 점차 후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과정을 서술한다. 4장에서는 1935년 10월, 굴라그 내에서 스타하노프운동이 시작되면서 수감자의 생산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심화함을 보일 것이다.

## I. 백해운하의 건설과 인간개조론, 1931-33년

1933년 8월 5일, 소련의 당 기관지 『프라브다(Правда)』의 전면에는 백해에서 발트해에 이르는 227킬로미터의 운하, 소위 ‘백해운하’의 개통을 축하하는 기사가 실렸다. 소련 정부 내각인 인민위원회의(Совнарком)는 “극도로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 죄수들의 노동력으로 20개월 만에 완공된” 운하에 찬사를 보냈다.<sup>21)</sup> 운하 건설을 총 지도한 통합국가정치보안부(ОГПУ)의 고위 인사들은 이 국가적 위업을 달성한 공으로 소련 최고의 영예, 레닌훈장을 수상했다. 그러나 운하건설의 주역은 이들만이 아니었다. 레닌훈장 수상자 중 두 명과 적색노동기훈장 수상자 대부분은 바로 죄수들이었다. 이후 지면을 가득 메운 것은 이 죄수들이 수용소에서 경험한 “개조”의 이야기들이었다. 『프라브다』는 그들이 노동의 기쁨을 배우고 소련의 시민이 갖춰야 할 문화적 덕목을 익혀 “자유로운 시민(вольный гражданин)”으로 재탄생했다고 전했다.<sup>22)</sup> 운하를 건설한 백해-발트해 수용소는 “인간개조를 대규모로 시도한 첫 사례”로 주목받았던 것이다.<sup>23)</sup>

“개조된 자(перекованный)”로 소개된 긴즈부르크(Б. В. Гинзбург)의 이야기는 그 중 하나였다. “전과범(рецидивист)”이었던 긴즈부르크는 수용소에 배치된 이후 한동안 노동을 거부했을 만큼 죄질이 불량했다. 그러나 수용소에서 그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토목공사에 투입되면서 긴즈부르크는 점차 노동에 열중했고, 머지않아 “돌격노동자(ударник)”의 칭호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수감자들의 “교육자(воспитатель)”가 되기도 했다.<sup>24)</sup> 결국 그는 백해운하의 완공과 함께 적색노동기훈장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프라브다』는 긴즈부르크처럼 “완전히 개조되고

21) “Об открытии Беломорско-Балтийского Канала имени т. Сталина,” *Правда*, 1933.8.5.

22) “Хорошо, что не убежал,” *Правда*, 1933.8.5.

23) M. Gorky, L. Averbach, and S. G. Firin, eds., *The White Sea Canal: Being an Account of the Construction of the New Canal between the White Sea and the Baltic Sea*, trans. Amabel Williams-Ellis (New York: Harrison Smith and Robert Haas, 1935), 337-338.

24) “Перекованный,” *Правда*, 1933.8.5.

사회주의 건설에 유용한 인간”으로 거듭난 죄수들이 수 만 명에 이른다고 강조하며 그들이 조기 석방이나 감형의 특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개조는 사실 낫선 이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10월 혁명 이래 줄곧 새로운 소비에트형 인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열망 하에 다양한 양태로 표출되었다. 이때 재교육은 개조의 핵심 기제로 여겨졌다. 이러한 이상은 형벌 정책에도 반영되었다. 1918년 7월 23일, 법무인민위원부(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иат юстиции)의 포고령은 형벌 제도의 기본 원칙으로 죄수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교육”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모든 교도소는 교육직을 설치하고 교육전문가를 고용해야만 했다. 죄수들은 “비록 지금은 일시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지만, 재교육될 수 있고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다”고 여겨졌던 것이다.<sup>25)</sup> 강제노동에 대한 최초의 법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24년에 제정된 교정노동법령에 따르면 교정노동기구의 목표는 죄수 개인의 복리와 갱생이었다.<sup>26)</sup>

이런 맥락에서 백해운하 건설의 총책임을 맡은 ОГПУ는 단순한 억압기구가 아니라 수감자들을 재교육하는 기관으로 천명되었다. 죄수들은 “새로운 소비에트인의 모범”으로 여겨졌던 ОГПУ 관료들의 지도에 따라 재교육의 과정을 충실히 수행해야 했다.<sup>27)</sup> 재교육의 주요 수단은 노동과 문화교육이었다. 그러나 수용소에서 이 둘의 경계는 불분명했다. 먼저 노동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산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곧 자아를 기르고 문화성을 함양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문화교육 또한 단순히 문학작품을 읽고 악기를 연주하는 등 협의의 문화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의 생산적인 노동으로 여겨지기도 했다.<sup>28)</sup> 즉, 재교육은 노동규율과 사회주의

---

25) Inna Klaus, "Music and 'Re-education' in the Soviet Gulag," *Torture* 23, no. 2 (2013): 24; Steven A. Barnes, "In a Manner Befitting Soviet Citizens: An Uprising in the Post-Stalin Gulag," *Slavic Review* 64, no. 4 (2005): 840.

26) А. Кокурин и Н. Петров (ред.), *ГУЛАГ: 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лагерей, 1917-1960* (Москв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нд «Демократия», 2000), 30.

27) Cynthia A. Ruder, *Making History for Stalin: The Story of the Belomor Canal*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98), 151; Lisa L. Booth, "Intellectuals, the Soviet Regime, and the Gulag: The Construction and Deconstruction of an Ideal" (master's thesis, Florida State University, 2006), 30.

28) Julie Draskoczy, *Belomor* (Brighton: Academic Studies Press, 2014), 25.

문화를 습득한 ‘소비에트적 근대인’을 훈육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굴라그 산하에 설치된 문화-교육국(культурно-воспитательный отдел)은 이러한 재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였다.<sup>29)</sup> 이 부서들은 정치 학습을 진행하고 연극 및 음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주관했다. 특히 신문 발행은 문화-교육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다. 1930년 10월 22일부터 발간되었던 백해-발트해 수용소의 『개조(Перековка)』는 그 최초의 사례였다.<sup>30)</sup>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개조』는 범죄자들을 “의식 있는 시민, 사회주의 국가의 유용한 구성원으로 개조하는” 역할을 맡았다.<sup>31)</sup> 신문은 수용소 내의 일상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노동과 학습을 독려하고 그 결과를 평가했다. 당대 소련의 신문들처럼 『개조』는 소비에트 인이라면 마땅히 지녀야 할 행동규범을 제시했던 것이다.<sup>32)</sup>

수감자들의 핵심 역할은 신문이 제시하는 행동규범에 따라 재교육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었다. 수감자통신원(лагкор)들은 그 역할을 가장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수감자들이었다. 이들은 신문기자로, 일상 소식에서부터 선전, 논평에 이르는 다양한 기사를 썼다. 흥미로운 점은 수감자통신원들의 역할이 신문의 기술적 제작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수감자였지만 동시에 신문이라는 ‘재교육의 견인차’에서 직접 논의를 생산하는 교육자이기도 했다. 일례로 알리모프(Сергей Алымов)라는 수감자통신원

29) 1930년, 인민위원회의는 법령을 통해 굴라그 내 문화-교육 관련 부서들을 제도화했다. Jacques Rossi, *The Gulag Handbook: An Encyclopedia Dictionary of Soviet Penitentiary Institutions and Terms Related to the Forced Labor Camps* (New York: Paragon House, 1989), 158.

30) 굴라그가 출범하기 이전인 1920년대에도 일부 수용소는 자체 신문을 보유했다. 특히 1930년대 이후 백해-발트해 수용소로 통폐합되었던 솔로베츠키 수용소(Соловецкий и исправительно-трудовой лагерь: СЛАГ)는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러나 1920년대의 수용소 신문은 수용소 당국의 개입 정도, 신문의 유통 범위와 내용 및 규모 등의 측면에서 1930년대의 신문과 달랐다. 그 구체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Felicitas Fischer von Weikersthal, *Die "inhaftierte" Presse: Das Pressewesen sowjetischer Zwangsarbeitslager 1923-1937*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11), 109-272.

31) 창간 5주년 기념 특집호인 1935년 10월 22일자 『개조』는 백해-발트해 운하 건설 시기 신문이 수행한 역할을 기리는 다수의 기사를 실었다. “Пламенный привет от работников Сталинского канала!,” “Приобретенный в лагере опыт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не оставим никогда,” *Перековка*, 1935.10.22.

32) Jeffrey Brooks, *Thank You, Comrade Stalin!: Soviet Public Culture from Revolution to Cold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xviii.



은 『개조』의 편집진이었을 뿐만 아니라 『백해-발트해 운하: 1931-1934년 건설의 역사(Беломорско-Балтийский канал имени Сталина: истор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1931-1934 гг, 이하 『백해운하』)』의 집필진이기도 했다.<sup>33)</sup> 『백해운하』는 고리키(Максим Горьки)와 30여명의 저명한 소련 작가들이 저술한 책으로, 운하 건설 과정에서 재교육된 죄수들의 모습을 그린 ‘개조의 교과서’에 다름 아니었다. 이런 맥락에서 수감자 신분으로 집필진에 이름을 올린 알리모프는 이제 수용소를 넘어 소련 사회 전역에서 교육자의 위상을 얻게 된 셈이었다. 이렇게 수감자통신원의 대열에 들어서는 것은 곧 자신의 재교육 수준을 입증하는 것이라 여겨졌다.<sup>34)</sup>

당국이 부여한 역할에 충실했던 이러한 수감자들은 일반 수감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렸다. 우선 문화-교육국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고된 육체노동을 피할 수 있는 길이였다. 원칙적으로 수감자들은 문화-교육국의 활동들을 주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달랐다. 굴라그 내 관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국은 고등교육을 받은 일부 수감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했다. 일례로 문화-교육국은 자신들의 업무를 보조할 수감자를 선임하기 위해 문화조직담당자(культурорганизатор)라는 직책을 신설하기도 했다.<sup>35)</sup> 문화교육에 앞장서 있던 수감자들은 훈장을 받거나 감형의 혜택을 얻기도 했다. 이러한 수감자들은 무엇보다도 “이미 오래 전에 국가, 노동자 가족으로 돌아온 이들”, 즉 주어진 개조의 과업을 거의 완수한 이들로서 수용소의 대표적인 모범수들이었던 것이다.<sup>36)</sup>

그러나 1930년대 중반, 굴라그가 지닌 인간개조의 성격을 강조하는 논

33) Ruder, *Making History for Stalin*, 54; A. Ю. Горчева, *Пресса ГУЛАГа, 1918-1955* (Москва: Московский гос. университет, 2009), 49.

34) Bell, “One Day in the Life of Educator Khrushchev,” 308.

35) O. E. Ermolaeva, *The Social History of the Soviet GULAG in the 1930s: the White-Sea Baltic Combine of the NKVD* (Petrozavodsk: Petrozavodsk State University, 2013), 119; Bell, “The Gulag and Soviet Society in Western Siberia, 1929-1953,” 92. 1931년 솔로베츠키 수용소의 문화-교육과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근무자들의 대부분이 죄수였음을 알 수 있다. В. Г. Макуров (ред.), *ГУЛАГ в Карелии: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и материалов 1930-1941* (Петрозаводск: Карельский научный центр, 1992), 9-11.

36) 창간 5주년 기념 특집호인 1935년 10월 22일자 『개조』에 이어 10월 26일자도 지난 5년간 신문이 걸어온 행보를 소개하는 기사들을 게재했다. “Каждый ударник-лагкорь, каждый лагкорь-ударник,” *Перековка*, 1935.10.26.

의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우선 백해운하 건설 과정에서 재교육된 죄수들의 모습을 그린 『백해운하』의 출판을 마지막으로, 굴라그는 소련의 공적 매체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다.<sup>37)</sup> 굴라그 내부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개조와 재교육의 이상은 서서히 희미해졌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바로 경제적 생산에 대한 논의였다.

---

37) Miriam Dobson, *Khrushchev's Cold Summer: Gulag Returnees, Crime and the Fate of Reform after Stalin*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9), 9-10.

## II. 인간개조론의 퇴조와 생산성론의 대두, 1935년

1930년대 중반, 굴라그 신문에 등장하는 수감자의 모습이 변화했다. 이제 재교육보다는 트랍키나와 같이 생산 활동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이들이 수감자들의 모범으로 등장했다. 이는 굴라그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던 당대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신문에 획일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백해-발트해 산업단지(БКК)에서 발간된 신문들은 그 종류에 따라 논조의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주보(主報) 『개조』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재교육보다는 생산 활동과 관련된 기사가 더 많이 등장했으나, 또 다른 신문인 『청소년 건설자(Юный строитель)』에서는 재교육을 강조하는 기사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 하지만 1935년 후반에 이르면 『청소년 건설자』 역시 생산 관련 논의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개조』는 이를 더욱 강조해 나갔다. 즉, 재교육 담론과 생산 담론이 병존하던 양상이 점차 후자가 전자를 압도하는 구도로 재편되었던 것이다. 본 장에서는 『청소년 건설자』와 『개조』 두 신문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sup>38)</sup>

### 1. БКК의 설립과 수용소 신문의 변화

개조의 이념 그 이면에는 당국이 주목했으나 대대적으로 선전하지는 않은 또 다른 측면이 있었다. 백해운하의 건설은 “처음으로 수용소가 소련의

---

38) 본고가 활용한 사료집이자 굴라그 내 신문들을 수합한 유일한 출판 자료인 *The GULAG Press, 1920-1937*는 1930-34년에 출간된 신문들을 거의 수록하지 않았다. 이는 한편으로 편집저자가 누락된 자료를 얻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탓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굴라그 발간 신문들이 부분적으로만 남아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1930-34년의 굴라그 신문을 본격적으로 살핀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1930년대 초반 수용소에서 발간된 신문들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935년에 발간된 『청소년 건설자』는 이전 시기 재교육 담론의 유산을 잘 드러내고 있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사료집의 구체적인 수록 사항에 대해서는 Leo van Rossum, Jim Verhoeff, and Hubb Sanders, eds., *Guide to the Microform Collection the GULAG Press, 1920-1937* (Leiden: IDC, 2000) 참고.

경제 발전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이다.<sup>39)</sup> 수감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데 ОГПУ가 보인 역량은 중앙 고위 당국자들의 구미를 당겼다. 이런 맥락에서 운하가 완공된 1933년 이후 정치국은 ОГПУ에게 많은 경제적 프로젝트를 할당하기 시작했다. 1933년에 시작된 제2차 5개년 계획은 이러한 경향성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제1차 5개년 계획(1928-32) 시기에 태동한 소련의 산업들이 급격한 발전을 구가하면서 중앙은 천연자원의 보고였던 변방지역의 생산 계획을 상향 조정했다. 이때 인구가 희박한 변방에서 이러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할 만한 노동력을 지닌 기구는 ОГПУ뿐이었다.<sup>40)</sup> 이제 ОГПУ의 굴라그는 수감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해 대규모 건설 및 자원 채굴, 그리고 일부 자원을 이용한 산업 생산까지 다채로운 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다.<sup>41)</sup>

이러한 경제적 역할의 강화는 수감자들의 노동에 대한 굴라그 당국의 태도를 변화시켰다. 1930년대 초, 출범 직후의 굴라그는 수감자들의 노동력을 경제적 생산에 동원한다는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sup>42)</sup> 당시 ОГПУ의 수장이었던 야고다(Г. Г. Ягода)의 말처럼 수용소는 “단지 죄수들을 모아 놓은 장소에 불과하고”, 굴라그에는 “그들의 노동력에 대한 전망이 부재”했다. 오히려 그는 굴라그가 ‘자발적인’ 주민 집단을 중심으로 변방의 식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용소와 같은 강제노동기구는 장기적으로 청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43)</sup> 그러나 경제적 프로젝트를

39) Nick Baron, “Production and Terror: The Operation of the Karelian Gulag, 1933-1939,” *Cahiers du Monde Russe* 43, no. 1 (2002): 139; 김남섭, 「스탈린 테러와 소련의 강제수용소」, 87.

40) 일례로 벌목업에 특화된 카렐리야 지역은 더 많은 목재를 생산해야만 했다. 그러나 생산 계획을 달성하기에 카렐리야 지역 당국이 보유한 민간 노동력은 역부족이었다. 생산 할당량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당국은 굴라그의 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Baron, *Soviet Karelia*, 142-144.

41) 이 시기에 굴라그가 새롭게 착수한 경제적 프로젝트들의 사례는 Khlevniuk, *The History of the Gulag*, 83-84 참고.

42) Khlevniuk, *The History of the Gulag*, 23. 바이올라 또한 굴라그 출범 초기, 수감자들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었을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녀에 따르면 수감자 노동력에 대한 경제적 접근은 농업 집단화 시기 쿨라크(кулак)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수적 현상이었다. Viola, *The Unknown Gulag*, 92.

43) Khlevniuk, *The History of the Gulag*, 23-25.

수행하는 대규모 수용소들이 소련 전역에 확대되면서, 굴라그 당국은 식민화 기초를 폐기하고 오히려 더 많은 죄수 노동력을 보유하고자 했다.<sup>44)</sup>

특히 1934년 7월, ОГПУ는 소련 내무인민위원회(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иат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СССР: НКВД)로 재탄생하며 법무인민위원회 등으로부터 수많은 감금기구와 21만 명이 넘는 수감자를 인수했다.<sup>45)</sup> 다양한 관할 부처에 분산되어 있었던 죄수들은 이제 굴라그라는 거대한 수용소 네트워크 휘하에 집중되었다. 그 외에도 약 800개에 이르는 소규모 산업기업소 및 농장과 같은 생산기구들이 НКВД의 산하로 들어왔다. 이러한 규모의 확대는 다시 경제 활동의 증대로 이어졌다. 1935년에는 소련 각지에서 공장, 철도 건설에 착수했고, 급기야 1936년에는 커져가는 전쟁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재원을 민간영역으로부터 흡수하기도 했다.<sup>46)</sup> 즉, 1930년대 중반 이후 НКВД의 굴라그는 막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거대 건설 프로젝트와 산업 생산을 담당하는 “경제적 제국(economic empire)”으로 변모해갔던 것이다.<sup>47)</sup>

인간개조론의 본산이었던 백해-발트해 수용소도 예외가 아니었다. 운하가 완공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33년 8월 17일, 수용소는 중앙 당국의 명령에 따라 산업단지 건설에 착수했다.<sup>48)</sup> 같은 해 9월에 등장한 ББК의

---

44) 이를 위해 야고다는 굴라그에 이송되는 죄수들의 최소 형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여 더 많은 죄수 노동력을 할당받으려 했다. Arch Getty and Oleg V. Naumov, *The Road to Terror: Stalin and the Self-destruction of the Bolsheviks, 1932-1939*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9), 114-118. 더욱이 식민화 기초의 약화는 1930년대 초반 굴라그 산하의 구금기구 중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했던 특별정착촌의 쇠퇴를 가져왔다. 1933년 이후, 식민화보다는 조직적인 생산 활동에 더 적합한 수용소가 규모, 기능, 중요성 면에서 특별정착촌을 급속히 추월했던 것이다. 1930년대 중반 수용소와 특별정착촌의 인구 규모 차이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Ю. А. Поляков, *Население России в XX веке: Исторические очерки* (Москва: РОССПЭН, 2000), 279, 300; В. Н. Земсков, *Спецпоселенцы в СССР, 1930-1960* (Наука, 2003), 20-23.

45) R. W. Davies, O. V. Khlevniuk, and S. G. Wheatcroft, *The Years of Progress: The Soviet Economy, 1934-1936*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4), 80.

46) 1935년 이후 굴라그는 더욱 많은 대규모 프로젝트들에 가담했다. 하바롭스크-콤소몰스크 철도 건설, 노릴스크 니켈공장의 건설, 모스크바-볼가 운하 급수소 건설, 세계자화학제지공장 건설 등이 그것이었다. 이 외에도 굴라그는 유압설비 및 곡물 저장고를 건설하는 책임을 맡기도 했다. Davies, Khlevniuk, and Wheatcroft, *The Years of Progress*, 212-213, 279.

47) Viola, *The Unknown Gulag*, 2.

설립 기초문은 수용소가 새로이 맡게 된 경제적 역할을 잘 보여준다.

… ББК(를 관할하는) ОГПУ는 카렐리아의 천연 자원을 개발하는 중역을 반드시 달성하고, … 새로운 대규모 유압 기술 설비와 수력발전소 및 산업 기업들을 설립하며, 탄광업과 광물자원 채굴업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정착촌들을 건설해야만 한다.<sup>49)</sup>

이러한 변화는 수용소의 신문에도 반영되었다. 우선 1935년 이후 ББК 발간 신문의 대다수는 생산 활동 보도에 특화되었다. 예를 들어 ББК의 수력발전소 건설현장, 툴롬스트로이(Тулломстрой)의 신문 『북극권의 개조(3 заполярная перековка)』는 개조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생산 현황을 보고하고 그 성과를 치하하는 기사들을 주로 실었다.<sup>50)</sup> 이는 주보인 『개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개조』는 ББК의 모든 생산 단위에 고정 통신원들을 보유하며 생산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취합 및 보도했다.<sup>51)</sup> 수감자통신원들과 그들의 신문은 이제 “생산에서의 승리를 위한 투쟁”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sup>52)</sup>

그렇다면 재교육에 대한 강조는 사라졌던 것일까? 『개조』를 비롯한 신문들은 일부 지면을 할애해 여전히 수용소의 목적이 노동과 교육을 통한 인간개조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감자들의 생산 활동에 대한 논의가 득세하면서 재교육 담론은 이제 ‘개조의 가능성이 높은’ 특정 수감자들에게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1935년 1월부터 ББК 관할의 청소년 노동 집단거주지(трудова́я ко́лония мо́лодежи)에서 발간되기 시작한 『청소년

48) М. Б. Смирнов, *Система исправительно-трудовых лагерей в СССР, 1923-1960: Справочник* (Москва: Звенья, 1998), 162.

49) Макуров (ред.), *ГУЛаг в Карелии*, 91.

50) 예를 들어 다음의 기사는 뒤쳐졌던 작업대(бригада)들이 현재 어떤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지 보도했다. “Каждого отстающего превратить в героя: Вот список позорно отстающих бригад,” *Заполярный перековка*, 1935.3.12. 다음의 신문들은 작업대별 생산달성지표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생산과제를 제시했다. *Заполярный перековка*, 1935.9.17., 1935.9.23., 1935.9.25.

51) “Каждый ударник—лагкор, каждый лагкор—ударник,” *Перековка*, 1935.10.26.

52) “Привет организатору борьбы за план, за перековку!,” *Перековка*, 1935.10.26.

년 건설자』는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청소년 건설자』는 여타 ББК의 신문과는 달리 전형적인 재교육 담론에 열중했다. 이러한 신문의 등장은 미성년자를 교육의 일차적인 대상으로 삼는 일반론의 차원을 넘어 당대 굴라그의 변화를 암시했다. 이제 재교육과 인간개조에 대한 논의는 생산 활동 관련 논의에 자리를 내주며 미성년자와 같은 일부 수감자들에게 축소되었던 것이다. 이는 1930년대 중엽, 수용소 생활이 성인 수감자들의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미성년 수감자들이 부적응 상태에 내몰렸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sup>53)</sup> 즉, 수용소의 일상 전반에서 재교육 담론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sup>54)</sup>

## 2. 피교육자에서 노동자로

『청소년 건설자』에서 미성년 수감자들은 자신들이 지닌 개조의 잠재성을 진작해야 하는 존재로 그려졌다. 1935년 4월 2일, 신문의 1면 상단을 장식한 문구는 다음과 같았다. “소비에트 정권은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정권은 청소년들이 교정되어 훌륭한 소비에트 인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같은 일자 2면에서 수감자들은 이러한 당국의 믿음에 응답하며 자신들이 겪은 변화를 고백했다. 이때 신문은 청소년 수감자들을 “피교육자(воспитаник)”라고 칭했다. 생산 노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업 및 문화 활동이 재교육의 핵심 고리였던 상황에서 성실한 학습 태도를 보이는 것은 수감자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반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낸 수감자들은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완전한 소비에트 시민”으로 성장해가는 이들로 묘사되었다.<sup>55)</sup>

53) Khlevniuk, *The History of the Gulag*, 123-129.

54) 이러한 상황은 『개조』와 『청소년 건설자』 두 신문이 발행주기 및 판형의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는 사실에서도 짐작 가능하다. 우선 『청소년 건설자』는 10일에 한 번 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판형도 비교적 작았다. 이는 1935년 4월 2일 이래 발행주기를 3일에서 2일로 줄였던 『개조』의 행보와 대비되는 것이었다. 생산논의의 비중이 압도적인 『개조』와 『북극권의 개조』는 심지어 더욱 큰 판형으로 발간되었다.

55) “Георгий Моторин будет расти полноценным гражданином СССР,” *Юный*

반면 『개조』는 『청소년 건설자』와 달리 수감자들의 생산 활동에 집중했다. 예를 들어 1935년 4월 3일자 『개조』는 4월에 끝나쳐야 할 생산 과제들을 열거하며 그것을 우수하게 달성하는 수감자들은 “특별 점수(особые зачеты)”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sup>56)</sup> 즉, 『개조』에 등장하는 수감자들은 생산할당량을 달성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얻는 “노동자”로 그려졌던 것이다.<sup>57)</sup> 그들은 각자가 종사하고 있는 직군에 따라 “목수”, “기계공” 등으로 불리며 생산 계획을 완수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 또한 수용소 당국은 당시의 민간 경제기관들처럼 생산기준량(норма)을 설정하고 수감자들에게 이 기준량을 초과달성하라고 독려했다.<sup>58)</sup> 이러한 두 신문의 논조 차이는 수감자들의 의무를 명시했던 기사에도 잘 드러난다. 1935년 3월 30일자 『개조』에 실린 한 기사는 수용소의 의무로 생산 활동을 강조했다.

굴라그의 수장 베르만(М. Д. Берман) 동지의 연설에 대한 답변으로, 수로 건설에 종사하는 엔지니어-기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 **생산 조직의 개선**, 생산 계획 목표의 초과달성, 막사에서 문화대중사업 등이 바로 그것이다.<sup>59)</sup>

이러한 논조는 노동을 정치-계몽교육 및 자치활동 등과 함께 학습의 일환으로 강조하던 『청소년 건설자』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

*строитель*, 1935.3.21.

56) 우수한 생산 성과를 내는 수감자들은 점수(зачеты)를 얻을 수 있었다. 해당 수감자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한 일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형기를 감면받았다. Rossi, *The Gulag Handbook*, 133. 수용소 내에서 특별 점수가 주어지는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사를 참조. “После пропуска паводка представить мне списки заключенных, достойных особого зачета,” *Перековка*, 1935.3.30.

57) 1935년도에 발간된 굴라그 신문들을 살펴보면 수감자들 일반을 지칭할 때 “죄수(заключенный)”, “수감자(лагерник)”보다 “노동자(работник)”, “일하는 사람(рабочий)”의 호칭이 훨씬 빈번하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을 참고. *Перековка*, 1935.10.22.

58) Leonid Borodkin and Simon Ertz, “Coercion versus Motivation: Forced Labor in Norilsk,” in *The Economics of Forced Labor*, eds., Gregory and Lazarev, 90.

59) “Обязательства ИТР,” *Перековка*, 1935.3.30. 강조는 원문을 따름.



… (БКВ의 부지휘관 우스펜스키 동지의) 환영사에 대한 답변으로 청소년 노동집단거주지의 돌격노동자들은 지도부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 첫째, **정치-계몽사업을 강화할 것이다.** … 둘째, 생산과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다.** 셋째, **문화적인** 삶을 학습하고 문화적인 일상을 조직할 것이다. … 60)

두 신문이 강조하는 의무의 차이는 곧 수용소 내에서 수감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지위에도 차이를 가져왔다. 먼저 『청소년 건설자』에서 피교육자들은 학습에 임하는 태도 및 학업의 성과에 따라 서로 다른 지위를 누렸다. 뛰어난 이들은 교육자의 지위를 얻거나 고층처리위원회, 문화위원회와 같은 집단거주지 내 자치조직의 의장을 맡았다. 특히 자치조직 활동은 재교육 과정에 필수적인 ‘공동체 활동(общественная работа)’의 일환으로, 그 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곧 다른 수감자보다 재교육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다. 반면 피교육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수감자들은 비난을 받았다. 신문은 ‘창피주기 의식(shaming ritual)’을 선도하며 “불량배”, “규율파괴자”, “노름꾼”들을 가려냈다. 이는 재교육 담론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일반 소련 신문에서는 찾기 어려운 면모였다.<sup>61)</sup> 재교육이 학업뿐만 아니라 시민교육 전반을 의미하는 상황에서 수업결석, 흡연, 도박과 같은 올바르지 못한 행실은 주요 비난 대상이었다.<sup>62)</sup>

한편 『개조』에 등장하는 수감자들은 생산 성과에 따라 서로 다른 지위를 누렸다. 뛰어난 수감자들은 곧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이들이었다. “뛰어난 목수”, “뛰어난 대장장이”들은 그들이 달성한 생산지표와 함께 지면에 등장했다. 작업 공정의 난점을 해결한 이는 “발명가(изобретатель)”, “합리적 개선자(рационализатор)”라는 이름을 얻었다.<sup>63)</sup> 특히 주목할 만한 호칭은 돌격노동자로, 이는 높은 생산성을 기록하는 수감자들을 일컬

60) “Удар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ребят,” *Юный строитель*, 1935.7.20. 강조는 원문을 따름.

61) Bell, “One Day in the Life of Educator Khrushchev,” 301, 312.

62) 특히 카드놀이는 당국의 척결 대상이었다. “Ребята, карты надо бросить!,” “Заядлые картежники,” *Юный строитель*, 1935.2.6.; “Что такое картежная игра и почему с ней надо бороться,” *Юный строитель*, 1935.6.3.

63) “Изобретатели и рационализаторы! Тулома ждет вашей работы,” *Перековка*, 1935.1.31.

었다.<sup>64)</sup> 『개조』에서 이들은 무엇보다도 “생산의 선도자”였다. 『청소년 건설자』 또한 돌격노동자의 행적을 중요한 기사거리로 다뤘다. 그러나 이때의 돌격노동자란 재교육 과정 전반에서 모범적인 행실을 보이는 이들을 의미했다.<sup>65)</sup> 이는 생산 성과를 근거로 우수노동자를 치하했던 『개조』의 모습과는 대비되는 것이었다. 반면 좋은 생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수감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이들(отказчик)”이라 불렸다. 하지만 『개조』에는 이들에 대한 창피주기 의식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다만 신문은 뒤쳐진 죄수들이 새로운 생산기록을 달성해가는 과정을 강조할 뿐이었다.<sup>66)</sup>

### 3. 수감자들의 교육자에서 당국의 노동자로

더욱이 흥미로운 것은 위에서 살펴본 수감자들의 지위 차이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작동했다는 사실이다. 『청소년 건설자』의 경우 뛰어난 피교육자들은 무엇보다도 수감자 사이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위가 높은 수감자들은 자신의 “모범적인 면모”를 뽐내거나 다른 “뒤쳐진 이들”의 행실을 폄하하는 글을 자주 기고했다. 일부는 소련 당국의 목소리를 전유해 수감자들을 직접 훈계하기도 했다.<sup>67)</sup>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지위가 높은 수감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직책을 맡고 있

64) 1920년대 소련 사회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이 호칭은 무엇보다도 노동규율을 잘 체득하고 높은 생산성을 기록하는 우수노동자를 일컫는 말이었다. Hiroaki Kuromiya, *Stalin's Industrial Revolution: Politics and Workers, 1928-193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319.

65) “‘Наш коллектив сегодня’: Проверка ударников 4 коллектива,” *Юный строитель*, 1935.5.8.; “Краткие вести: Ударник по уборке мусора,” *Юный строитель*, 1935.3.31. 재교육에 관한 논의가 지배적이던 시기에 대표적인 돌격노동자로 주목받았던 이들은 바로 수감자통신원들이었다. 수감자통신원들은 노동과 문화교육 전반을 선도하는 이들로 가장 우수한 수감자 집단 중 하나였던 것이다. 1931년 3월 23일자 『개조』에 처음 등장해 이후 수용소 신문의 주요 슬로건으로 자리하는 “모든 돌격노동자는 수감자통신원이요, 모든 수감자통신원은 돌격노동자(Каждый ударник—лагерь, каждый лагерь—ударник)”라는 문구는 이를 잘 보여준다.

66) “Сумели вовлечь отказчиков в работу,” *Перековка*, 1935.1.21.; “Они доказали свое исправление: тепер—не снижать, а повышать темпы!,” *Перековка*, 1935.1.27.

67) “Бросьте, ребята, скверные привычки,” *Юный строитель*, 1935.2.6.

지 않은 일반 수감자들도 자신들의 행실에 따라 언제든지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 한 피교육자는 동료 수감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이 실내에서 흡연을 하고 이에 항의하면 폭력을 행사한다고 고발했다. 이 피교육자는 실내 금연 규율이 자신을 비롯한 올바른 수감자들의 의지(воля)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며 규율을 지키지 않는 죄수들에 대해 도덕적 우월감을 드러냈다.<sup>68)</sup> 더 나아가 높은 지위의 수감자들은 다른 수감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들로 그려지기도 했다. 주목할 만한 사례는 “공동체 재판(общественный суд)”이다. 1935년 4월, 수감자들은 공동체 생활에 해를 끼치는 “질서의 파괴자(дез-организаторы)”들을 가려내기 위해 재판을 열었다. 절도와 폭행 등 악질적인 행동을 일삼은 수감자 8명이 재판정에 섰다. 이때 판결을 진행한 수감자 대표자들은 당 지도부에 요청해 기소된 수감자들을 정부의 관련법에 의거, 소비에트 재판정에 넘기자는 결정을 내놓았다.<sup>69)</sup>

한편 『개조』에 등장하는 뛰어난 노동자들의 모습은 이와 달랐다. 그들은 수감자 사이의 관계를 넘어 당국과 더 호의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그려졌다. 이는 지위의 차이가 주로 수감자들 간의 우열을 명시하는 논리로 활용되었던 재교육 담론과는 다른 면모였다. 우선 『개조』의 돌격노동자들은 수용소의 생산 활동에서 “주도권”을 갖는 존재로 그려졌다. 소련의 산업화 과정에서 중앙 당국이 공장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동력을 강조했다. 수용소 당국 또한 수감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던 것이다. 신문은 이들을 “강제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들의 헌신(обязательство)으로

68) “Постановлено—не курить, а они курят,” *Юный строитель*, 1935.5.22. 편집진은 1935년 4월 2일자 신문에서 “불량행위에 맞선 싸움(борьба с хулиганством)”을 선포하며 모든 피교육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에 많은 수감자들은 행실이 좋지 못한 학생들의 이름과 죄목을 적은 글을 편집부에 투고했다. 매 호 마지막면에 실리던 “우편함(почтовый ящик)” 코너를 보면 실제로 게재되지 않은 기사들 중에서도 이러한 기고문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9) “По дезорганизаторам—беспощадный огонь: Закон от 7 апреля применить в колонии,” *Юный строитель*, 1935.5.8. 또 다른 공동체 재판은 음주와 도둑질, 폭력을 일삼은 수감자 세 명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중 두 명에게 각각 추방과 독방감금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한 명에게는 개선의 기회를 주겠다고 결정했다. “Дыбский из колонии исключен: Остальным—предупреждение,” *Юный строитель*, 1935.2.16.

노동 집단을 조직”하는 존재로 묘사했다.<sup>70)</sup> 어떤 수감자들은 생산 공정에 필요한 기계를 직접 발명하고, 생산성 저해를 막기 위해 사고 예방에 힘쓰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수감자들은 당국자로부터 칭찬과 포상을 받았다. 심지어 이들은 당국자들의 일처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sup>71)</sup> 당국자는 이들에 대한 칭찬과 포상을 아끼지 않았다.<sup>72)</sup> 즉, 수감자들의 역할을 다루는 담론의 차원에서 수감자들과 굴라그 당국 사이에는 ‘생산 기준량’이라는 경제적 목표가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생산 성과가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우수노동자들에 부과되는 여타 억압들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 반면 당국은 생산 활동에 방해가 되는 수감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1935년 노동절, 『개조』는 베르만의 연설을 인용하며 생산과정을 방해하는 자는 “처벌, 처벌, 또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sup>73)</sup> 이들에게 당국의 억압기제는 더욱 가혹한 것이었다.

물론 수용소 내에서 생산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굴라그 출범 초기부터 신실한 노동은 문화교육과 함께 죄수를 개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거론되었다.<sup>74)</sup> 그러나 이제 수감자의 노동과 그가 달성하는 생산량은 수용소 신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았다. 신문들은 개조와 재교육에 감사하는 수감자들 대신, 수용소에서 자신이 습득한 구체적인 기술과 그것을 통해 획득한 지위에 열정을 보이는 수감자들의 모습을 그렸다. 수감자들이 수행하는 노동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 4. ‘재교육’에서 ‘생산성’으로

70) “Вместо КУРа организовать трудколлектив обязательства ударников Сегежи,” *Перековка*, 1935.7.15.

71) “Авторы лучших предложений премированы,” “‘Грозный’ начальник,” *Перековка*, 1935.3.8.; “Шофер И. Д. Орлов предупредил аварию,” “Земснаряд ‘Карская’ в сорокском порту: Крупное достижение советского изобретательства,” *Перековка*, 1935.7.17.

72) “Вместо КУРа организовать трудколлектив обязательства ударников Сегежи,” *Перековка*, 1935.7.15.

73) “Героически добиваться места в жизни!,” *Перековка*, 1935.5.1.

74) 『백해운하』의 책임 저자 중 한 명이었던 고리키는 범죄자들을 건강한 소비에트 시민으로 재탄생시키는 “참교육”의 본질이 노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О воспитании правдой,” *Правда*, 1933.8.5.

그러나 『개조』에서도 재교육을 강조하는 논의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많은 수감자들은 생산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종류의 학습을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를 서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조』와 『청소년 건설자』의 재교육 담론은 큰 차이를 보였다.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것은 두 신문이 재교육에 필요한 구체적인 덕목들을 서로 다르게 제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우선 『청소년 건설자』는 자치활동(самоуправление)을 재교육의 주요 수단으로 꼽았다. 수감자들은 고충처리위원회, 문화-대중활동위원회 등을 갖춘 전체 구성원 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했다.<sup>75)</sup> 일부 수감자들은 자경단활동(самоохрана)을 중요한 개조의 경험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문화활동의 역할도 두드러졌다. 한 수감자는 자신이 금연을 한 이유로 합창단 활동을 들기도 했다.<sup>76)</sup>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문학이 수행하는 재교육적 역할이었다. 문학은 개조의 이상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는 활동으로, 수감자들은 문학작품을 읽도록 독려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작가가 되어야 했다.<sup>77)</sup> 『청소년 건설자』는 수감자들이 직접 쓴 문학작품을 자주 게재했다.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다룬 개조의 논의들은 무엇보다도 문학의 형식을 차용했던 것이다.<sup>78)</sup>

반면 『개조』는 “재교육”과 “개조”라는 표현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기술 습득을 수감자의 핵심 덕목으로 꼽았다. 문화-교육국에서 제공되는 교육과

75) С. С. Виленский, *Дети ГУЛАГа: 1918-1956* (Москв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нд «Демократия», 2002), 196.

76) “Буду полезным человеком,” *Юный строитель*, 1935.2.6.; “Мой рассказ о самом себе,” *Юный строитель*, 1935.3.21.; “Я пошел по правильному пути,” *Юный строитель*, 1935.5.8.; “Я бросил курить,” *Юный строитель*, 1935.5.22.

77) “Я хочу быть таким, каким стал Авдеенко,” *Юный строитель*, 1935.2.16.

78) 일례로 6월 13일자 『청소년 건설자』에는 “나의 삶(Моя жизнь)”이라는 제목의 시가 실렸다. 이 시의 저자는 고생스러웠던 지난 삶을 슬회하며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노동 및 학습에 열중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흥미로운 것은 이어지는 편집진의 평가가 주로 시의 형식과 관련되었다는 점이다. 편집진은 만족스럽지 못한 표현을 교정해주며 “푸시킨, 고골 등 저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읽고” 학습 수준을 높여 “확실한 러시아어를 쓰라”고 지적했다.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읽는 것은 내용과 형식 모든 측면에서 수감자를 재교육하는 중요한 방편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을 참조. *Юный строитель*, 1935.2.16., 1935.6.13., 1935.10.10.

정들 중 기술학교(техникум)의 수업을 듣는 것은 수감자들의 중요한 의무로 여겨졌다. 실제로 기술학교의 교육 내용은 ББК의 당면 생산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었다.<sup>79)</sup> 이제 기사의 방점은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바탕으로 포상을 받고 승진을 하는 등 생산자로서의 경력을 쌓는 것에 놓였던 것이다.<sup>80)</sup> 이런 맥락에서 『개조』는 문학의 형식을 빌린 자기서사보다는 생산 활동과 관련된 보도들을 신는데 집중했다. 그 형식은 생산 수치들로 가득 찬 보고서에서부터 고위 당국자의 생산 목표 제시에 응답하는 결의문에까지 다양했다. 이러한 내용이 집단적으로 거론되는 노동자회의는 중요한 기사거리였다. 생산 분과 별로 진행되는 경쟁캠페인(конкурс) 또한 자주 등장했다.<sup>81)</sup> 캠페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생산 작업대들은 자신들의 작업 공정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은 같은 시기 소련 노동자들에게서도 자주 발견되었다. 굴라그 밖의 노동자들 또한 새로운 소비에트인으로 거듭나는 과업을 넘어 더욱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개조』의 논조는 노동 생산성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던 당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주어진 경제적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당국은 죄목보다는 생산성에 근거를 두고 수감자들을 분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들의 생산 활동에 동기를 부여할 만한 물질적, 수사적 유인을 더욱 구체화했다.<sup>82)</sup> 특히 숙련기술자들이 필요한 산업시설 건설이 증가하면서 수감자들의 기술 습득은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1935년 말엽, 스타하노프운동이 시작되면서 수감자들의 역할은 더욱 생산자 쪽으로 경도되었다. 『개조』를 비롯한 수용소의 신문들은 이 운동의 선봉에 서 있었다. 『청소년 건설자』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변화를 경험했다. 10월 중순 이후 『청소년 건설자』는 『개조』의 논조를 닮아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1935년 10월 25일, 『청소년 건설자』는 청소년 집단거주지가

79) 1935년 10월 당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던 툴롬스트로이는 건설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수력공학 기술학교를 새로 설치하기도 했다. "Строительно гидротехнический техникум," *Перековка*, 1935.10.17.

80) "Во-век не забуду той заботы," *Перековка*, 1935.10.22.

81) 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을 참고. *Перековка*, 1935.1.31., 1935.10.31.

82) Davies, Khlevniuk and Wheatcroft, *The Years of Progress*, 212.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선언했다. 이제 청소년 집단거주지는 무엇보다도 노동숙련과 고품질의 생산을 겨냥한 프로그램들을 육성해야 했고, 회계원리(принцип хозрасчета)에 따라 산업재정 계획을 마련해야 했다.<sup>83)</sup> 이후 청소년 수감자들의 생산 활동을 다루는 기사의 비중은 급속히 증가했다. 특히 구체적인 생산성 지표를 활용해 수감자들의 성과를 치하하는 면모는 『개조』의 모습과 흡사했다.

쿨리크(Кулик)는 생산 과제를 208퍼센트로 추가 달성한다. 가르체프(Гарцев)는 212퍼센트, … 말리셰프(Мальшев)는 282퍼센트를 기록한다. 그리고 이 생산 지표들은 높은 노동의 질도 겸비하고 있다! … 우리는 스타하노프노동자가 되기로 확고히 결심했고 그렇게 될 것이다!<sup>84)</sup>

재교육을 목표로 했던 청소년들의 수용소 또한 생산성 증진을 강조하는 스타하노프운동에 가담하기 시작했던 것이다.<sup>85)</sup>

---

83) “Наша колони на новом этапе: Указания начальника ГУЛАГ тов. БЕРМАН о дальнейших задачах трудовой колонии молодежи,” *Юный строитель*, 1935.10.25.

84) “Рассказ о том, как зародилось стахановское движение в ДОФШ и что нужно для его дальнейших успехов,” *Юный строитель*, 1935.12.18.

85) 『청소년 건설자』에 게재된 생산성 증진 및 스타하노프운동 관련 기사는 다음을 참고. “Мы стали строить лодки лучше и быстрее: Судостроевец-стахановец Андреев рассказывает о своем опыте,” “По-настоящему развернуть стахановское движение в колонии: получили ударные книжки—свой первый документ,” *Юный строитель*, 1935.12.4. 본고가 활용한 사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청소년 건설자』 마지막 호는 1935년 12월 29일자이다.

### Ⅲ. 스타하노프운동과 생산성론의 강화, 1936년

1935년 9월, ББК 당국은 수용소의 “모든 노동자와 엔지니어-기술자들”에게 스타하노프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sup>86)</sup> 소련 전역에서 성장하고 있던 스타하노프운동이 굴라그에도 그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이미 수감자들의 생산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던 ББК는 이를 받아들여 수감자들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자 했다. 수용소 발간 신문은 이제 “스타하노프운동의 조직가”로 일컬어지기 시작했다. 이듬해 초에는 스타하노프운동의 이름을 내건 새로운 신문이 발간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수감자들의 생산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국이 생산성 증진을 위한 유인책들을 강화하면서, 수감자들은 생산성에 따라 더 많은 금전적 보상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수감자들의 모습은 굴라그 밖 스타하노프노동자들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었다. 본 장에서는 스타하노프운동 시기 굴라그 수감자들에게 강조되었던 역할과 그들이 획득할 수 있었던 지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당대 굴라그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할 것이다.

#### 1. ББК의 스타하노프운동과 수용소 신문의 변화

1935년 8월 31일, 돈바스의 채탄노동자 알렉세이 스타하노프(Алексей Стаханов)는 자신의 생산 기준량을 14배나 초과달성하며 일약 소련의 노동영웅으로 부상했다. 『프라브다』는 9월 2일 그의 기록적인 채탄량을 보

---

86) Макуров (ред.), *ГУЛаг в Карелии*, 111-112.



도했고, 약 열흘 뒤 스타하노프운동의 출범을 선언했다.<sup>87)</sup> 제1차 5개년 계획 이래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던 생산성에 대한 강조가 정점에 달하는 순간이었다. 스타하노프운동은 노동에 대한 집단적 열광(трудовой энтузиазм)을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기술숙달수준의 향상과 생산조직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 증진의 효과를 내고자 했다. 이러한 스타하노프운동의 기치 하에 숙련기술 및 작업 공정의 합리화를 토대로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는 노동자들은 ‘스타하노프노동자’의 칭호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산성에 따라 성과급을 받고 차별화된 생활조건을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적 특권들은 다시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강조되었다. 즉, 1935년 후반 스타하노프운동의 출범과 함께 소련의 노동자들은 무엇보다도 생산성을 경진하는 존재로 거듭나야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스타하노프운동은 굴라그의 수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까? 기존의 연구들은 굴라그 내의 스타하노프운동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는 한편으로는 운동 그 자체의 성격 때문이었다. 스타하노프운동은 단기간에 소련 전역으로 확산되었지만 생명력이 짧았고, 더욱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sup>88)</sup> 하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증진운동이 굴라그 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리 없다는 시각 때문이었다. 굴라그의 경제적 측면을 조명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위로부터의 계획과 착취에 관심을 두었을 뿐 그것이 수감자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다.<sup>89)</sup> 그러나 스타하노프운동은 수용소에 광범위하게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감자들을 노동자로 바라보는

87) 1935년 9월 2일자 『프라브다』는 알렉세이 스타하노프의 기록 경신 소식을 보도했고, 9월 11일에는 ‘스타하노프운동’이라는 표현을 처음 거론했다. “Рекорд забойшка Стаханова,” *Правда*, 1935.9.2.: “Важный почин в Донбассе,” *Правда*, 1935.9.11.

88) 스타하노프운동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입장은 Lewis Siegelbaum, *Stakhanovism and the Politics of Productivity in the USSR, 1935-194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2-4 참고.

89) 일부 굴라그 연구자들은 굴라그 내의 스타하노프운동을 단편적으로 조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운동을 선전으로 치부하거나 이전 시기부터 이어져 오던 개조 정책의 일환으로만 이해했다. Barnes, *Death and Redemption*, 61; Draskoczy, *Belomor*, 150-154.

당국의 시각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러한 스타하노프운동에 대한 굴라그의 관심은 당대 개별 수용소들이 처했던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특히 ББК는 193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더 이상 중앙의 재정 지원과 면세특권을 누릴 수 없었다. 이제 ББК는 이전까지 마련해온 산업 기반 위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내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했던 것이다.<sup>90)</sup> 이를 위해 ББК는 수익성 창출에 방해가 되는 사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sup>91)</sup> 수용소 내의 문화교육활동도 긴축의 대상이었다. 1936년 당국은 전체 예산의 2.7%를 문화교육활동에 지출했는데, 이는 1934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었다.<sup>92)</sup> 더욱이 1930년대 중반 이래 НКВД의 수용소들이 소련 전역에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ББК는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좋은 신체조건이나 숙련기술을 갖춘 수감자들이 ББК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로 배치되었기 때문이다.<sup>93)</sup> 『개조』에 따르면 기술학교를 우수하게 마친 일부 수감자들은 ББК에 남지 않고 바이칼-아무르 수용소로 보내지기도 했다.<sup>94)</sup> 이러한 맥락에서 ББК당국은 수감자들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90) Christopher Joyce, "The Gulag in Karelia: 1929 to 1941," in *The Economics of Forced Labour*, eds., Gregory and Lazarev, 168. 1936년 이전까지 ББК가 누렸던 면세특권에 대해서는 Макуров (ред.), *ГУЛаг в Карелии*, 90 참고.

91) ББК는 1936년 중엽 식민지부를 해체하고 생산 계획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구금 기구들을 다른 민간 당국에 넘겼다. Baron, *Soviet Karelia*, 182-183.

92) Ermolaeva, *The Social History of the Soviet GULAG in the 1930s*, 126; Baron, "Production and Terror," 152.

93) 1935년대 초반, 총 7만 명의 굴라그 수감자들 중 약 7만 명을 수용하고 있던 ББК는 인구로 따지면 세 번째로 큰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당대의 최우선순위 프로젝트였던 모스크바-볼가 수용소(19만 명) 및 바이칼-아무르 수용소(15만 명)는 엄청난 수의 죄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지점은 이 수용소들의 인구 중 상당수가 다른 수용소에서 충원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백해운하의 완공 이후, 높은 생산성을 보였던 다수의 수감자들은 '개조된 자'로서 석방되기보다 위에서 언급한 두 곳의 수용소로 재배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2년 중엽 10만 명에 육박하던 백해-발트해 수용소의 인구는 1935년 약 7만 명 선으로 감소했다. Khlevniuk, *The History of the Gulag*, 86; Baron, "Production and Terror," 149. ББК의 인구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Смирнов, *Система исправительно-трудовых лагерей в СССР*, 162-164, 394-397.

94) Bell, "The Gulag and Soviet Society in Western Siberia, 1929-1953," 66; Baron, "Production and Terror," 149. ББК의 문화-교육국에서 기술학습 과정을 조기 졸업한 우수인재들 중 바이칼-아무르 수용소로 이감된 죄수들의 사례는 다음을 참고. "Больше заботы о курсантах техникума КВО!," *Перековка*, 1935.7.1.

끌어올리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1935년 10월 ББК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스타하노프운동은 그 대표적인 면모였다.

1935년 10월 20일자 『개조』는 “스타하노프운동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없다 - 이는 조직되어야만 한다”는 표제 하에 스타하노프운동을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신문은 스타하노프운동의 진행 상황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데 앞장섰다.<sup>95)</sup> 이제 인간개조를 외치던 작가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스타하노프운동을 독려하는 소련 중앙지의 선전 구호들이 『개조』의 전면을 장식했다.<sup>96)</sup> 또한 신문은 “『개조』가 도왔다(Перековка помогла)”와 같은 고정코너를 통해 생산 과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작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산 활동에 깊숙이 관여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ББК가 스타하노프운동의 가치를 내세운 새로운 신문을 발간했다는 것이다. 1936년 1월, ББК 산하의 화학제지공장 건설현장인 세계즈스트로이에서 『세계즈스트로이의 스타하노프노동자(Стахановец Сеgezжсторя, 이하 『스타하노프노동자』)』라는 신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sup>97)</sup>

## 2. ‘수감자-스타하노프노동자’의 역할

『스타하노프노동자』는 매 호 운동의 진행상황과 수감자들의 성과를 보도했다. 특히 신문은 개별 스타하노프노동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그들의 생산 기록을 알리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기사들은 전형성을 지니고 있었다. 신문은 주기적으로 생산 분과 별 기록 달성자들의 명

---

95) “Приказ: По Беломорско-Балтийскому Комбинату НКВД, № 341, 24 октября 1935 года.” *Перековка*, 1935.10.26.

96) 이러한 『프라브다』의 슬로건이 신문의 전면을 장식한 사례는 다음을 참고. “Надо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для максимально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й работы целой смены, а затем и всех смен.” *Перековка*, 1936.1.4.

97) 1936년 이후, 많은 수용소들은 수감자-스타하노프노동자들과 그들의 생산 활동을 다룬 신문들을 별도로 발간했다. *Стахановский опыт-всем*, *Стахановец колонии*, *Стахановец* 등이 그것이다. *The GULAG Press, 1920-1937*, 각각 fiche 397, 398, 438-440 참고.

단을 제시하며 그들이 어떤 기술적, 조직적 개선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얼마나 높은 생산수치를 달성했는지 명시했다. 특별히 우수한 기록을 달성한 자들의 이름은 언제나 빠지지 않았다.<sup>98)</sup> 이는 『개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제4건설구역의 스타하노프노동자들인 콜레예프(Коллеев), 아흐메트(Ахмет) ... 등은 노동을 시작하기 전,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공구를 정비한다. 이 덕분에 그들은 생산 기준량을 최소 210퍼센트 이상으로 달성한다. ...<sup>99)</sup>

스타하노프노동자를 소개하는 기사 또한 유사한 형식을 따랐다. 범죄로 얼룩졌던 죄수들의 과거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수감자들은 다만 스타하노프운동이 제시한 노동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존재로 그려졌다. 작업 공간의 정비, 작업 시간의 체계화, 기술 습달은 그 대표적인 덕목이었다. 더불어 스타하노프노동자들은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다른 노동자들과 공유하도록 독려 받았다.<sup>100)</sup> 항구 건설 현장의 스타하노프노동자였던 미헤프(Михев)는 이러한 덕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생산 작업대의 책임자로 노동자들을 “정확하게” 배치해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작업대원들의 기술 습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항상 주의를 기울였다. 또 다른 스타하노프노동자인 채굴꾼 쿠자스(Кузас)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주어진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켜 높은 생산성을 냈다.<sup>101)</sup>

이런 기사들은 스타하노프노동자들을 무엇보다도 수용소 내의 엔지니어이자 기술자로 묘사했다. 생산 공정을 익히고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노동자의 자격을 얻는 과정으로 수감자들의 중요한 의무였다. 『스타하노프노동

---

98) 『스타하노프노동자』는 거의 모든 호의 1면 오른쪽 상단에 생산단위별 기록달성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생산 성과를 게시했다. 그 사례는 다음을 참고. “День рекордов на 1 стройучастка,” *Стахановец Сегежсороля*, 1936.5.1.; “Рекордисты-плотники 2 участка,” *Стахановец Сегежсороля*, 1936.5.16.

99) “Завоеуем право быть на совещание,” *Перековка*, 1936.1.4.

100) 이는 굴라그 밖의 스타하노프노동자들이 갖춰야 했던 덕목들과 일치했다. Siegelbaum, *Stakhanovism and the Politics of Productivity in the USSR, 1935-1941*, 153.

101) “Растет число стахановцев Сороки,” *Перековка*, 1936.1.4.

자』는 “기능교육(ученичество)”과 “최저기술지식교육(техминимум)”을 수용소 내 학습활동의 주요 성과로 보도했다. 특히 기능교육은 기술력이 높은 수감자 신분의 강사에 의해 진행되었다. 전문기술교육을 통해 수용소 내의 기술자를 양성하는 일은 스타하노프운동의 중요한 목표였던 것이다. 이와 함께 기술교육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수용소 내 교육자 일반에게도 기술적 능력이 강조되기 시작했다.<sup>102)</sup> 복잡한 공정에 숙달된 직군을 만들어 내기 위해 수용소의 모든 교육자들은 그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수용소의 교육이 무엇보다도 생산성의 증진과 생산계획의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탄생한 수용소의 스타하노프노동자들은 수용소 내의 생산 활동에서 주도권을 지닌 인물들로 그려졌다. 특히 그들은 ББК의 생산 활동이 직면했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 묘사되었다. 일례로 1936년 5월 1일자 『개조』는 스타하노프노동자들이 작성한 제안서들을 게재했다. 그들은 각자가 종사하고 있는 생산 분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개선방안들을 제안했다. 당국은 신문의 지면을 빌려 이들의 제안이 “노동합리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치하하며 제안서의 내용들을 승인했다.<sup>103)</sup> 이러한 면모는 작업장 단위에서의 자발적인 개선을 통해 개별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증진하려던 소련 일반의 스타하노프운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수용소 내의 ‘노동자대회’는 이러한 수감자들의 생산 주도권이 표출되는 장이었다. 수감자 대표자들은 고위 당국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개별 작업대들의 상황을 공유하고 생산 공정의 개선을 도모했다. 1936년 5월, 세계즈스트로이의 제2차 스타하노프노동자대회에서 ББК의 고관 페모프(А. Н. Пемов)는 당면한 생산 활동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낮은 품질

102) “Окончили курсы: бригадного ученичества, техминимума и ликбеза,” *Стахановец Сегежсоря*, 1936.5.1.; “Березовская стала строгальщиком,” *Стахановец Сегежсоря*, 1936.5.13.; “Подковать воспитателей политически и технически,” *Стахановец Сегежсоря*, 1936.5.16.

103) “Рационализаторы за работой,” *Перековка*, 1936.5.1.; “Рациональнее использовать автомешины при ПГЧ 1 МГО необходимо создать,” *Перековка*, 1935.10.26.

과 높은 비용, 생산 기준량 설정의 어려움 등 경제적 문제들이 바로 그것이었다. 페모프는 특히 비용 절감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수감자-스타하노프 노동자들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그는 비용이나 품질 차원에서 성과가 미진한 작업대들을 지적하면서도 그들을 단순한 비난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해당 작업대의 “현장감독”과 “십장”들에게 주도권을 갖고 상황을 개선하라고 독려했던 것이다.<sup>104)</sup>

### 3. ‘수감자-스타하노프노동자’의 지위

생산성이 높은 수감자들은 마치 소련 공장의 스타하노프노동자들이 그러하듯 수용소 내에서 다양한 특권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그들은 이전 시기의 뛰어난 수감자들처럼 관리직으로 발탁되는 등 수용소 내에서 높은 지위를 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일반 수감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신문은 스타하노프노동자들이 이발소와 같은 수용소 내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일반 수감자들보다 질 좋은 식사를 하며 여가생활 또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sup>105)</sup>

생활조건의 차등화는 굴라그가 활용하던 대표적인 인센티브 체계 중 하나로, 수감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1936년 1월 ББК의 수장 알마조프(З. А. Алмазов)가 내린 “스타하노프노동자의 주거 및 생활 조건 개선과 관련한 조치들”은 수감자들의 노동 생산성에 대한 당국의 관심을 잘 보여준다. 그는 스타하노프노동자들의 특권을 명시하며 수용소의 관리자들에게 이를 책임지고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

104) “Решительно покончить с еще имеющимися неполадками,” *Стахановец Сегежсоя*, 1936.5.5.

105) “В этот день работели по-стахановски,” *Перековка*, 1936.1.4.; “На Сегежстрой прибыл медвежгорский духовой оркестр ...,” *Стахановец Сегежсоя*, 1936.8.2.

교정노동수용소의 관리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모든 단위의 책임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타하노프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원조와 지지를 직접 나서서 제공해야 하며 그들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 관리자들이 (수감자 신분의) 간부 및 인재들에 대한, 무엇보다도 스타하노프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갖출 수 있도록, (관리자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의식을 가르쳐라.<sup>106)</sup>

이처럼 수용소 당국은 스타하노프노동자들을 “간부”이자 “인재” 집단으로 칭하며, 그들의 노동 생산성이 수용소의 경제적 임무 수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했다.<sup>107)</sup>

생활조건에서의 혜택과 더불어 수감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전적 보상을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스타하노프운동이 확산되기 이전에도 굴라그 당국은 물질적 보상을 동기 부여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sup>108)</sup> 그러나 스타하노프운동과 함께 수감자들 간의 임금 격차는 더욱 강조되었다. 당국은 생산기준량 달성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임금 지불을 명시했다.<sup>109)</sup> 일례로 세계즈스트로이의 가장 뛰어난 작업대였던 노다(И. К. Нода)의 작업대는 매월 생산기준량을 평균 200퍼센트 이상으로 달성했다. 그 대가로 작업대원들은 평균 230루블의 임금을 받았는데, 이는 그 다음으로 생산 성과가 좋았던 작업대보다 30루블이나 많은 것이었다.<sup>110)</sup> 특히 1935년, 굴라그 내에서도 배급제가 폐지되면서 돈은 곧 부족한 식품과 생필품을 얻을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되었다.<sup>111)</sup> 알마조프는 “스타하노프노동자들이 언젠든 자신의 임금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용소 내 매점은

106) Макуров (ред.), *ГУЛаг в Карелии*, 117.

107) 굴라그 당국자들은 생활조건 개선의 목적을 무엇보다도 수감자들의 생산성 증진으로 명시했다. Макуров (ред.), *ГУЛаг в Карелии*, 96-97.

108) 그 대표적인 사례는 “Премирование,” *Заполярная перековка*, 1935.9.17.

109) “Приказ по ББК,” *Перековка*, 1936.2.11.

110) 수감자들은 임금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거나 수용소 내에서 각종 물자를 구매하는 데 썼다. “Профтехобразование—на службу стахановскому движению,” *Стахановец Сегежсороя*, 1936.5.16.; “Как получать деньги с личного счета,” *Стахановец Сегежсороя*, 1936.7.24.

111) Oleg Khlevniuk, *The History of the Gulag*, 105. 굴라그 내 배급제 폐지와 관련된 보도는 다음을 참고. *Перековка*, 1935.9.28.

항상 가장 좋은 식료품과 생필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sup>112)</sup> 이는 무엇보다도 높은 생산성을 지닌 수감자들의 노동력을 보전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뛰어난 수감자들은 조기 석방이라는 최고의 특혜를 얻을 수 있었다. 신문은 종종 석방된 수감자들의 편지를 실으며 “돌격노동을 통해 석방의 권리를 획득하라”고 설파했다. 그들은 ‘개조의 완수자’라기 보다 수용소의 노동자 출신으로서 석방 이후 소련의 공장에 취업해 자신들의 경력을 계속 이어가는 이들로 그려졌다.<sup>113)</sup> “노동일수 점수제(зачет рабочих дней)”는 그 권리를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였다. 이 제도에 따르면 수감자는 생산기준량을 초과달성한 일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형기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sup>114)</sup> 1930년대 초에 도입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폐지되었던 이 제도는 1930년대 중반 이후 생산성에 대한 요구가 심화되면서 스타하노프노동자들의 주요 특권으로 자리했다.<sup>115)</sup>

그러나 이러한 감형 제도는 생산성의 측면에서 양날의 검이었다. 뛰어난 수감자의 석방은 굴라그의 생산 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당국은 곧 자유민이 될 이들의 노동력을 굴라그에 묶어 두고자 고심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석방자를 자유노동자로 다시 고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수용소 내 신문에 자주 등장했다. 스타하노프노동자였던 한 수감자는 형기만료일보다 2년 7개월 빨리 석방되었다. 그는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구 건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자유고용인의 신분으로 수용소에 남아 굴삭공의 일을 계속 하겠다”고 선언했다.<sup>116)</sup> 석방자들은 다른 지역의

112) Макуров (ред.), *ГУЛаг в Карелии*, 117.

113) “Ударной работой на Сегежстрое завоюем право на освобождение,” *Стахановец Сегежсгоря*, 1936.7.30.

114) 신문에 실린 구체적인 실행 지침은 다음을 참고. *Перековка*, 1935.8.15. 이 제도가 작동하던 방식과 그것이 수감자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Simon Ertz, “Trading Effort for Freedom: Workday Credits in the Stalinist Camp System,”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47, no. 2 (2005): 476-491 참고.

115) 일례로 1936년 7월 21일, 『스타하노프노동자』는 1936년도 1사분기에 노동일수 점수제에 따라 형기를 감면 받은 이들의 명단을 발표했다. 총 134명의 수감자들은 최소 4일에서 최대 90일에 이르는 감형을 받았다. “Список стахановцев Сегежстроя, получивших стахановские зачеты за 1 квартал 1936 года,” *Стахановец Сегежсгоря*, 1936.7.21.

116) “Остаюсь работать вольнонаемным мастером,” *Перековка*, 1936.1.4.



굴라그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었다. 신문은 소련 전역에 위치한 굴라그 관할 공장 및 농장의 일자리를 홍보하며 우수노동자들의 취업을 알선 하기도 했다.<sup>117)</sup> 이는 변방지역의 경제 활동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던 대규모 수용소들이 석방자의 노동력을 벌충할 만한 ‘자유’ 노동력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던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었다.<sup>118)</sup>

---

117) “Вниманию освобождающихся ударников,” *Стахановец Сегежсоя*, 1936.8.2.

118) 실제로 대규모 수용소들이 위치했던 소련의 변방 지역에서 자유민과 수감자의 경계는 불분명했다. 일부 수용소들은 경제적으로 무력한 지역 당국 대신 해당 지역 전체의 생산 계획 달성을 주도하면서 주변 지역의 자유민들을 굴라그 내 생산 업무에 고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심지어 일부 지역의 자유민들은 굴라그 수감자보다 열악한 생활을 하기도 했다. Alan Barenberg, “From Prison Camp to Mining Town: The Gulag and its Legacy in Vorkuta, 1938-65” (PhD Diss., The University of Chicago, 2007), 9. 스탈린 시대의 ‘자유’ 노동과 ‘부자유’ 노동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논의는 다음을 참고. Sheila Fitzpatrick, “War and Society in Soviet Context: Soviet Labor before, during, and after World War II,”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Class History*, no. 35 (1989): 41-47.

## 결 론

1936년 7월 30일, 『스타하노프노동자』는 수용소 밖에서 도착한 한 통의 편지를 대서특필했다. 편지의 발신인은 세계즈스트로이의 우수한 작업대장 중 한 명이었던 보이토프(B. И. Бойтов)였다. 10년 남짓한 형기를 끝마치고 지난 5월 석방된 그는 이제 모스크바 지하철 건설현장의 노동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취업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찾아가던 모스크바의 관료는 그가 죄수였다는 사실에 난감해 했다. 그러나 보이토프는 수감 생활 동안 자신의 경력을 기록해온 “돌격노동자 수첩(книжка ударника)”을 지니고 있었다. 수첩에는 그가 숙련된 굴삭공(земляной работник)이라는 사실이 적혀있었다. 이를 확인한 관료는 곧 그를 채석장에 배정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모스크바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전혀 낯설지 않았다. 그는 수용소에서 했던 대로 노동자 회의에 참석했고 공산주의 청년동맹원(комсомолец)들을 능가하는 생산성을 보이기도 했다.<sup>119)</sup> 보이토프는 수용소에서 이미 ‘공장’ 생활을 경험했던 것이다.

1930년대 중반, 굴라그는 보이토프와 같은 수감자들을 필요로 했다. 기술을 습득하고 생산 과정을 주도적으로 개선하며 높은 생산성까지 겸비한 수용소의 노동자들은 굴라그의 경제적 생산성 증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이러한 요구는 인간개조론의 산실로 여겨졌던 백해-발트해 수용소의 변화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소비에트적 가치를 교육하는 수단이었던 수감자들의 노동은 ББК의 출범 이후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1935-36년 ББК에서 발간되었던 신문들은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신문은 수감자를 노동자로 호명하고, 수용소에서의 노동을 공장에서의 생산 노동에 비유하며, 일부 수감자들이 누리는 생활조건을 생산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묘사했다. 스타하노프운동의 도입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화했다. 이제 수감자들은 무엇보다도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

---

119) “Из бригадиров Сегежстроя в рабочие Метростроя.” *Стахановец Сегежсгоря*, 1936.7.30.

수감자를 노동자로 바라보는 관점이 당대의 수용소 신문에서 두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용소의 일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었는지 규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10만 명에 육박하는 ‘죄수’를 통제해야 했던 수용소의 당국자들에게 이러한 수감자관이 얼마나 유효했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37년 대숙청과 함께 수감자를 노동자로 대우하는 이전 시기의 관행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은 역으로 본고에서 살펴본 1935-36년의 수감자관이 어느 정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1937년 7월 말 대숙청의 시작을 알리는 “대규모 작전들(массоперации)”이 개시된 직후, 굴라그 중앙의 문화-교육국은 내부 문건을 회람해 수감자를 “스타하노프노동자”와 같은 노동영웅으로 칭하는 것을 금지했다. 문건은 이러한 관행을 “정치적 오류”라고 지적하며 수감자들을 단순히 “죄수(з/к)”로 부를 것을 명했다.<sup>120)</sup> 생산성론을 선도했던 수용소 신문 또한 대숙청과 함께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소련 전역의 수용소들은 늦어도 1937년 여름 이전에 자체 신문의 발행을 중단했고, ББК 또한 1937년 5월부터 『개조』와 『스타하노프노동자』 등 대다수의 신문을 폐간했다.<sup>121)</sup> 이러한 상황의 반전은 1935-36년의 수용소 신문과 그것이 설파하던 수감자관이 수용소 내부의 실상과 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1930년대 중반 소련의 강제노동수용소에 만연했던 독특한 수감자관과

120) Ivanova, *Labor Camp Socialism*, 80-81. 개별 수용소들 또한 굴라그 중앙 당국의 지침에 따라 수감자를 노동자로 대우하는 관행을 금지했다. 일례로 1940년 10월 2일, ББК의 문화-교육국장이 내린 명령은 1930년대 후반 이후 수용소 당국자들의 수감자관이 이전과 확연히 달랐음을 보여준다. “... 금후 죄수를 ‘생산의 선도자’, ‘뛰어난 이’ 등으로 명명하고 기록하는 관행을 중단하라. ... 생산현장에서 ‘스타하노프노동자’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 죄수들의 막사를 ‘스타하노프노동자’관이라 부르는 것, 취사시설 내에 ‘스타하노프노동자의 취사관’을 설치하는 것은 위대한 사회주의 건설의 주역인 스타하노프노동자의 높은 위상을 폄하하는 일이다. 죄수들에게 이런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즉시 금하라.”, Макуров (ред.), *ГУЛАГ в Карелии*, 183-184.

121) 예를 들어 우흐타-페초라 수용소(Ухтпечлаг)는 자체 발행하던 모든 신문과 벽보를 1937년 중에 폐간했다. Горчева, *Пресса ГУЛАГа*, 146; Fischer von Weikersthal, *Die “inhaltierte” Presse*, 519-521. 이렇게 대숙청 기간 동안 사라졌던 수용소 신문들 중 일부는 1939년 이후, 대다수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1940년대 중반 이래 다시 등장했다. 그러나 전후 수용소 신문이 반영한 내부 담론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1940년대 이후 재등장했던 수용소 신문들의 구체적인 발간 시기와 명칭에 대해서는 Горчева, *Пресса ГУЛАГа*, 137-150 참고.

그 함의는 이제껏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당대의 굴라그는 죄수의 재교육을 강조했던 앞 시기의 연장, 혹은 체제의 적을 억압했던 뒷 시기의 서막으로 여겨지며 굴라그의 역사에서 별도의 지위를 얻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보았듯 시선을 굴라그의 ‘내부’로 돌리면, 1930년대 중반의 시기는 오히려 굴라그의 역사에서 중요한 변곡점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변화는 굴라그에 형벌기구 혹은 억압기구의 기능을 부여하려 했던 소련 당국의 의도나 굴라그가 결과한 외부적 지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때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수용소의 당국자들이 굴라그라는 기관을 어떻게 인식했으며 그것을 수용소의 일상에 어떻게 관철시키려 했는지의 영역에서 일어났다. “돌격노동자”, “스타하노프노동자” 등으로 불렸던 수감자들의 등장과 그들의 말과 글을 전달하는 수용소 신문의 발전은 1933년 이후 경제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던 굴라그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수용소 당국은 경제적 생산을 수용소의 주요 역할로 인식했고, 수용소 내부의 담론 지형은 그 인식을 반영하는 거울이었던 것이다.

수용소의 실상을 반영하는 대부분의 내부 문건들은 여전히 기밀 자료로 분류되어 접근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용소 신문이 담고 있는 수감자의 모습과 그 변화는 1930년대에 급격히 발전한 굴라그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굴라그는 단일하고 균질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았다. 그것은 시기에 따라, 개별 수용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리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경관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본고가 살펴본 BBK는 그 수많은 수용소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BBK는 굴라그 산하의 첫 번째 대규모 수용소이자 거의 모든 후발 수용소들의 전례로 여겨졌다는 점에서 1930년대 수용소가 겪은 변화를 대표하는 곳이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BBK의 사례는 억압기구와 교정기구, 그리고 생산기구의 영역을 오가며 당대 소련 사회 전반의 변화에 발맞춰 독특한 입지를 구축했던 굴라그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특히 소련 경제의 변영기라고도 불렸던 1930년대 중반, 굴라그를 일종의 공장으로 묘사했던 수용소 내부의 담론은 소련 경제와 굴라그가 맺고 있던 관계를 새로이 조명할 만

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즉, 굴라그라는 소련의 독특한 수용소 시스템의 성장과 발전은 인간개조 혹은 정치적 억압이라는 목표의 이면에 자리했던 경제적 생산에 대한 압력을 반영하는 또 다른 사회적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sup>122)</sup>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1930년대 이후 약 30여 년간 지속될 굴라그의 장기적인 역사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22) 일부 연구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 경제적 동원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함에 따라 굴라그의 생산성이 강조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종전 이후 경제 복구 시기에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했다고 보았다. Yoram Gorzki and O. V. Khlevniuk, *Cold peace : Stalin and the Soviet Ruling Circle, 1945-195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124-133; Leonid Borodkin and Simon Ertz, "Forced Labour and the Need for Motivation: Wages and Bonuses in the Stalinist Camp System,"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47, no. 2 (2005): 418-436 다른 한편으로 최근 일부 연구자들은 스탈린시대의 사회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경제적인 요소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음을 강조한다. Andrew Sloin and Oscar Sanchez-Sibony, "Economy and Power in the Soviet Union, 1917-39," *Kritika: Explorations in Russian and Eurasian History* 15, no. 1 (2014): 7-22, 특히 16-17, 21.

## 참고문헌

### I. 사료 및 당대 기록

#### 1. 신문

*The GULAG Press, 1920-1937.* Leiden: IDC Publishers, 2000.  
Microfiche.

*Правда*

#### 2. 출간 문서

Виленский, С. С. *Дети ГУЛАГа: 1918-1956.* Москв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нд «Демократия», 2002.

Земсков, В. Н. *Спецпоселенцы в СССР, 1930-1960.* Москва: Наука, 2003.

Кокурин, А. и Петров, Н. (ред.) *ГУЛАГ: 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лагерей, 1917-1960.* Москв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нд «Демократия», 2000.

Макуров, В. Г. (ред.) *ГУЛаг в Карелии: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и материалов 1930-1941.* Петрозаводск: Карельский научный центр, 1992.

Поляков, Ю. А. *Население России в XX веке : Исторические очерки*. Москва: РОССПЭН, 2000.

Смирнов, М. Б. *Система исправительно-трудовых лагерей в СССР, 1923-1960: Справочник*. Москва: Звенья, 1998.

### 3. 회고록 및 당대 기록

Ginzburg, Evgeniia. *Journey into the Whirlwind*. New York: Brace and World, 1967.

\_\_\_\_\_. *Within the Whirlwind*. New York: Brace and World, 1981.

Gorky, M., L. Auerbach, and S. G. Firin, eds. *The White Sea Canal: Being an Account of the Construction of the New Canal between the White Sea and the Baltic Sea*. Translated by Amabel Williams-Ellis. New York: Harrison Smith and Robert Haas, 1935.

Rossi, Jacques. *The Gulag Handbook: An Encyclopedia Dictionary of Soviet Penitentiary Institutions and Terms Related to the Forced Labor Camps*. New York: Paragon House, 1989.

Mochulsky, F. V. *Gulag Boss: A Soviet Memoir*. Translated by Deborah Kapl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Shalamov, Varlam. *Kolyma Tales*. Translated by. John Glad. New York: W. W. Norton, 1980. 국역본 『콜리마 이야기』. 이종진 역, 서울: 을유문화사, 2015.

Solzhenitsyn, Aleksandr I. *The Gulag Archipelago, 1918-1956: An Experiment in Literary Investigation*. Translated by Thomas P. Whitney, and Harry Willets. 3 vols. New York: Harper Perennial, 2007.

Swianiewicz, Stanislaw. *Forced Labour and Economic Developm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 II. 연구 문헌

### 1. 단행본

Adler, Nanci. *The Gulag Survivor: Beyond the Soviet System*.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2004.

Applebaum, Anne. *Gulag: A History*. New York: Doubleday, 2003.

Barenberg, Alan. *Gulag Town, Company Town: Forced Labor and its Legacy in Vorkut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4.

Barnes, Steven A. *Death and Redemption: The Gulag and the*



- Shaping of Soviet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 Baron, Nick. *Soviet Karelia: Politics, Planning and Terror in Stalin's Russia, 1920-1939*. London: Routledge, 2007.
- Brooks, Jeffrey. *Thank You, Comrade Stalin!: Soviet Public Culture from Revolution to Cold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 Conquest, Robert. *The Great Terror: A Reassess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 Dallin, David J., and Boris I. Nikolaevsky. *Forced Labour in Soviet Rus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7.
- Davies, R. W., O. V. Khlevniuk, and S. G. Wheatcroft. *The Years of Progress: The Soviet Economy, 1934-1936*.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4.
- Dobson, Miriam. *Khrushchev's Cold Summer: Gulag Returnees, Crime and the Fate of Reform after Stalin*.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9.
- Draskoczy, Julie. *Belomor: Criminality and Creativity in Stalin's Gulag*. Brighton: Academic Studies Press, 2014.
- Ermolaeva, O. E. *The Social History of the Soviet GULAG in the 1930s: the White-Sea Baltic Combine of the NKVD*.

Petrozavodsk: Petrozavodsk State University, 2013.

Ertz, Simon. *Zwangsarbeit im stalinistischen Lagersystem: Eine Untersuchung der Methoden Strategien und Ziele ihrer Ausnutzung am Beispiel Norilsk, 1935-1953*. Berlin: Duncker & Humboldt, 2006.

Figes, Orlando. *The Whisperers: Private Life in Stalin's Russia*. New York: Metropolitan Books, 2007. 국역본 『속삭이는 사회: 스탈린 시대 보통 사람들의 삶, 내면, 기억』. 김남섭 역, 서울: 교양인, 2013.

Fischer von Weikersthal, Felicitas. *Die "inhaftierte" Presse: Das Pressewesen sowjetischer Zwangsarbeitslager 1923-1937*.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11.

Fitzpatrick, Sheila. *The Cultural Front: Power and Culture in Revolutionary Rus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Getty, J. Arch, and Oleg V. Naumov, eds. *The Road to Terror: Stalin and the Self-destruction of the Bolsheviks, 1929-1939*.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9.

Gilmore, Ruth Wilson. *Golden Gulag: Prisons, Surplus, Crisis, and Opposition in Globalizing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2007.

Gorlizki, Yoram and O. V. Khlevniuk. *Cold peace: Stalin and*

*the Soviet Ruling Circle, 1945-195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Gregory, Paul R., and Valery Lazarev, eds. *The Economics of Forced Labour: The Soviet Gulag*.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2003.

Harris, James R. *The Great Urals: Regionalism and the Evolution of the Soviet Syste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Ivanova, Galina Mikhailovna. *Labor Camp Socialism: The Gulag in the Soviet Totalitarian System*. Translated by Carol Flath. Armonk: M. E. Sharpe, 2000.

Jakobson, Michael. *Origins of the GULAG: The Soviet Prison-camp System, 1917-1934*. Lexington: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3.

Khlevniuk, Oleg V. *The History of the Gulag: From Collectivization to the Great Terro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4.

Kuromiya, Hiroaki. *Stalin's Industrial Revolution: Politics and Workers, 1928-193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Nove, Alec. *An Economic History of the USSR, 1917-1991*. London: Penguin Books, 1992. 국역본 『소련경제사』. 김남

섭 역,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8.

Rittersporn, Gabor Thomas. *Stalinist Simplifications and Soviet Complications: Social Tensions and Political Conflicts in the USSR*. Chur: Harwood Academic Publishers, 1991.

Rossum, Leo Van, Jim Verhoeff, and Hubb Sanders. *Guide to the Microform Collection of the GULAG Press, 1920-1937*. Leiden: IDC Publishers, 2000.

Ruder, Cynthia A. *Making History for Stalin: The Story of the Belomor Canal*.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98.

Siegelbaum, Lewis H. *Stakhanovism and the Politics of Productivity in the USSR, 1935-194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Toker, Leona. *Return from the Archipelago: Narratives of Gulag Survivor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0.

Viola, Lynne. *The Unknown Gulag: The Lost World of Stalin's Special Settlemen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Горчева, А. Ю. *Пресса ГУЛАГа, 1918-1955*. Москва: Московский гос. университет, 2009.

Иванова, Галина М. *История ГУЛАГа 1918-1958: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й и политико-правовой аспекты*. Москва: Наука, 2006.

## 2. 논문

김남섭, 「스탈린 테러와 소련의 강제수용소: 굴라그와 강제 노동의 경제학」, 『제노사이드 연구』, 제3호 (2008): 67-99.

김남섭, 「스탈린 시대의 소련 강제수용소 연구: 수감자들을 둘러싼 수용소 내의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제202호 (2009): 295-331.

Alun, Thomas. "On Guard at BAMlag: Representations of Guards in the 1930s Gulag Press." *The Soviet and Post-Soviet Review* 41, no. 1 (2014): 3-32.

Barnes, Steven A. "Researching Daily Life in the Gulag." *Kritika: Explorations in Russian and Eurasian History* 1, no. 2 (2000): 377-390.

\_\_\_\_\_. "In a Manner Befitting Soviet Citizens: An Uprising in the Post-Stalin Gulag." *Slavic Review* 64, no. 4 (2005): 823-850.

Baron, Nick. "Conflict and Complicity: The Expansion of the Karelian Gulag, 1923-1933." *Cahiers du Monde Russe* 22, no. 1 (2001): 615-648.

- \_\_\_\_\_. "Production and Terror: The Operation of the Karelian Gulag, 1933-1939." *Cahiers du Monde Russe* 43, no. 1 (2002): 139-180.
- Bell, Wilson T. "One Day in the Life of Educator Khrushchev: Labour and Kul'turnost' in the Gulag Newspaper." *Canadian Slavonic Papers* 46, no. 3-4 (2004): 289-313.
- Borodkin, Leonid and Simon Ertz. "Forced Labour and the Need for Motivation: Wages and Bonuses in the Stalinist Camp System."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47, no. 2 (2005): 418-436.
- Draskoczy, Julie. "The Put' of Perekovka: Transforming Lives at Stalin's White Sea-Baltic Canal." *Russian Review* 71, no. 1 (2012): 30-48.
- Ertz, Simon. "Trading Effort for Freedom: Workday Credits in the Stalinist Camp System."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47, no. 1 (2005): 476-491.
- Fitzpatrick, Sheila. "War and Society in Soviet Context: Soviet Labor before, during, and after World War II."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Class History* 35 (1989): 37-52.
- Gullotta, Andrea. "A New Perspective for Gulag Literature Studies: the Gulag Press." *Studi Slavistici* 8, no. 1

(2011): 95-111.

Klaus, Inna. "Music and 'Re-Education' in the Soviet Gulag." *Torture* 23, no. 2 (2013): 24-33.

Sloin, Andrew and Oscar Sanchez-Sibony. "Economy and Power in the Soviet Union, 1917-39." *Kritika: Explorations in Russian and Eurasian History* 15, no. 1 (2014): 7-22.

### 3. 학위논문

Barenberg, Alan. "From Prison Camp to Mining Town: The Gulag and its Legacy in Vorkuta, 1938-65." PhD Diss., The University of Chicago, 2007.

Bell, Wilson T. "The Gulag and Soviet Society in Western Siberia, 1929-1953." PhD Diss., University of Toronto, 2011.

Booth, Lisa L. "Intellectuals, the Soviet Regime, and the Gulag: The Construction and Deconstruction of an Ideal."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Florida, 2006.

Nordlander, David J. "Capital of the Gulag: Magadan in the Early Stalin Era, 1929-1941." PhD Diss.,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1997.

## Abstract

# From Re-education to Productivity

## The Changing Nature of Soviet Corrective Labor Camp in mid-1930s

Jisoo Hong

Department of Wester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the changing nature of Soviet incarceration in the mid-1930s, focusing on the White Sea-Baltic Combine, the corrective labor camp located in Karelia region. An apparatus of the “GULag”, the administrative agency of the incarceration system in Soviet Russia, corrective labor camps were the representative institution of detention. Historians studying Soviet mass incarceration have pointed out that these camps, which grew rapidly during the bleak years of Stalinist rule in 1930s, served as an instrument of oppression and



punishment. Corrective labor camps, they claims, were repressive and corrective in nature. This widely accepted perspective, however, portrays the camps as monolithic, unchanging institutions. On the contrary, corrective labor camps evolved over time, particularly in the mid-1930s when they put emphasis more on labor and less on re-education. This new emphasis mirrored a greater socioeconomic change of the mid-1930s. An impulse for industrialization swept the whole country, and its impact was also felt strongly in corrective labor camps despite their marginality in Soviet Russia. In the camps, the industrial impulse was evident in inmates' daily works, which demanded inmates to become agents of industrial productivity.

To illuminate this change, this thesis scrutinizes the Gulag newspapers published in 1935 and 1936 at the White Sea-Baltic Combine, one of the earliest and best-known concentration camps in the Stalin era. The Gulag newspapers, circulated only within the camp, vividly illustrated inmates foremost as laborers. Articles, editorials, and reader letters written by both officials and inmates betrayed a perspective that highlighted the camp primarily as an economic institution striving for higher labor productivity. Refashioning the camp as a laboratory of productivity was primarily an internal change, but it also drew on resources from the Stakhanovite movement, a widespread social campaign on productivity in the mid-1930s. The Gulag newspapers often lauded the productive inmates as the Stakhanovites and reported in detail about the Stakhanovite movement. In this light, this thesis demonstrates the ways in which corrective labor camps evolved into a unique organization that prioritized prisoners' productivity, not re-education.

**Keywords:** Gulag, Corrective Labor Camp, Gulag Newspaper, White Sea-Baltic Combine, Inmate, Productivity of Gulag, Stakhanovite Movement, Reforging

**Student Number:** 2013-22778